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물의 주창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믿고 그 창조와 계획하신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a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1월 15일 (토) 제 150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사상 최악의 성적표 받은 오바마 대통령

## WSJ, '2014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양당 정국운영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이번 선거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었다. 현 정치 시스템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지난 4일, 공화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공화당이 '오바마 리더십'을 비판한 주요 선거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한다(For Obama, a Harsh Referendum: Elections Became a Referendum on His Presidency).

한편 2014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 가정사역단체인 페이스앤패밀리코어리전(Faith & Family Coalition)의 랄프 리드(Ralph Reed) 박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기관 퍼블릭오피니언스트레티지스 설문 조사 결과 2014년 중간선거의 전체 유권자 중 1/3 가량이 자신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드 박사는 "복음주의자들의 투표는 2010년,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치른 선거 당시와 현재의 공화당 위치를 비교해 본다면,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든든한 지지울 없이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인들은 전국에 걸쳐 대부분 공화당 후보들을 선택했다.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0%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가톨릭 신자의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6%였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의 경우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기독교인 82%, 가톨릭 신자 70%로 더욱 높았다.

대다수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 후보들은 선거유세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의 찬조출연을 극구 사양하면서, 인기 없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각 선거구에서 중요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단 한 명과 선거유세를 펼쳤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후보의 당선에 확실시되는 미시간에서 찬조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책은 심판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출신 후보들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둘 다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캔터미디어 산하 '캠페인미디어 분석그룹(CMAG)'이 중립 성향의 '웨즐리언 미디어 프로젝트'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원 경합 지역 11곳 가운데 4곳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TV 광고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가 이번 주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등록 유권자의 67%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상당히(a great deal)' 또는 '꽤 많이(quite a bit)'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정 운영 방향에



이번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압승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단히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간선거 이후 전면적인 변화를 꾀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수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줬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1986년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 여럿을 참신한 인재로 교체했다.

1994년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백악관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다. 199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비로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받아든 중간선거 성적표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시작했다. 2010년 공화당이 63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6석만 추가로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백악관은 정책과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팀'이 현재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했다.

로널드 레이건 재임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켄 두버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훈수를 봤다.

(3면으로 계속)

# 남성보다 오래 사는 여성...이유는 모른다!

## 뉴스위크,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 분석 보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원인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이유나 설명들이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유럽의 경우,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3년(영국)에서 6년(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정도 짧다. 동유럽으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남성은 여성보다 7-8년 빨리 사망하며, 벨라루스, 러시아, 리투아니아에선 그 차이가 평균 12년이나 된다(남성 평균수명 63세, 여성은 75세). 2010년 7월 조지아의 안티사 크비차가 자신의 130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공식기관의 인증이 없지만 당국은 그를 세계 최고령자라고 주장했다. 크비차는 2012년 별세했다고 보고됐다. 남성 장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도 여성이 더 오래 산다. 캐나다, 키 프로스, 이스라엘 등이 그에 속한다. 이 나라들의 여성 평균 수명은 82세다. 일본 남성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4세나 된다. 문제는 그 이유다. 아직 아무도 정확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다. 예를 들어 영국 보건부의 대변인은 "세상의 이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스위크지는 최근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들(Why Do Women Live Longer Than Men?)"에 대한 보도를 통해 그 실마리를 추적하고 있다.

## 생물학적 요인, 실업, 사회경제적 지위, 의료수준, 생활방식의 차이 추측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너무 많다. 먼저 실업의 영향이 한 가지 가설이다. 영국 남성건강포럼(MHF)과 일리리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 상태에 있는 남성 실업자들은 일리리제를 가진 남성보다 사망할 확률이 20%나 높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마틴 토드 MHF 대표가 말했다. "이번에 나온 우리 보고서는 실업이 남성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의 베르트랑 데자르맹 인구학 교수는 프랑스 인구학자 자크 발랭의 이론을 지지한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남성은 힘과 권력을 추구한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여성의 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강하고 건강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과 도전에 노출된다." 다른 학자들은 원래 유전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공격을 받을 때 여성의 면역체계가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킹스 칼리지 런던의 데이비드 H. 필립스 환경발암학 교수가 말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성의 정자 생산과 관련된 염색체가 계속 감소하면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네틱스에 발표된 스웨덴 욕살라데 연구팀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3면으로 계속)



2면

기독교, 고난 받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크리스천 리더십 변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16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노봉린 박사

신, 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게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 감당을 위해 불철주야 충성하시는 목회자 여러분에게 삼가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직·간접적인 계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계에서 달아 두었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만방에 구원의 말씀을 알리야 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금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나 일정 : 2014년 11월 3일~27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강사 : 라홍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담임)

회비 : 무료 (점심, 목회자료 제공)

일시	장소	연락처
11월 3일(월)	구려 호산나교회 지리산가족호텔	한창영 목사 010-2018-0866
11월 4일(화)	친구 산동교회	전중식 목사 010-6610-5305
11월 6일(목)	오찬 오찬나눔교회	김재현 목사 010-8000-0172
11월 11일(화)	제주 이기봉기념관	김상중 목사 010-2772-0491
11월 13일(목)	친구 에덴교회	박창재 목사 010-3860-5631
11월 18일(화)	촌천 신성감리교회	박상철 목사 010-6403-0691
11월 20일(목)	서울 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	쿰란출판사 02-747-1004
11월 24일(월)	부산 남산중앙교회	황형진 목사 010-2988-1644
11월 27일(목)	광주 경향교회	윤세관 목사 062-223-1113



①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권 신약권 ③ 칠십이레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⑤ 다니엘 ⑥ 7 국어어휘 말씀 요한계시록 성서 ⑧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약



강사 라홍채 목사

- 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1962. 3-1968. 2) • 미국 '테네코'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1996. 6)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제자교회 설립(1996. 9) • 뉴욕제자교회 담임목사(2012. 현재)





시론

감사와 나눔 그리고 은혜



은희곤 목사 (참사목회)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한 곳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행구어 깨끗이 옷을 빨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옆에 있는 가이드에게 말합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은 하루 동안 자그마치 10만3천6백89번을 뛰고, 폐로는 2만3천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이렇게 심장이 잘 뛰고 폐가 호흡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과 폐를 움직여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매일 못마땅해 하며 투닥거리려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하다못해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 부족 없이 혼자서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등등 매일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잊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청년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다쳤습니다. 선생님에게 뛰어가 상황을 설명하며 감사해 하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려. 그런데 나는 지난 40년 동안 그 길을 다녔는데 1번도 사고가 난적이 없네.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은가?"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큰 사고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고 없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감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를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잘 나가는 핑크빛 인생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는 한숨 쉬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고통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기 힘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사도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치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일에 늘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옳은 사람이 처한 가장 혹독한 시련가운데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는 것을 믿고, 시련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렘3:17-19),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Thank"는 "Think"에서 출발합니다. 뭘 해줘도 맞았다, 맞았다 하며 먹어야, 해주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서 더해주고 싶잖습니까? 우리들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서 "내가 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하고 마음먹으시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살전5:18).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임하실 것입니다. "감사와 나눔과 은총"은 함께 갑니다. 이 역사가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풍요로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고난 받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CT, 중동 극단이슬람주의 창궐로 기독교 종말예측에 대한 필립 젠킨스의 반론 제기(1)

이슬람국가(IS)의 창궐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뿌리를 기억하고 중동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인식할 가치가 있다. 2000년 전 기독교는 종교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현재의 이스라엘, 레반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를 포함한 레반트(Levant) 지역의 다른 부분으로 전파됐다. 7세기에 무슬림이 정복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은 중동에서 중요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융성했다.

그 지역에서 무슬림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20세기 초까지 중동인구의 약 20%를 구성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중동인구의 단지 2-5%만 차지하며 그 숫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영토가 없고 그들 주인들(중동국가)의 생각에 전적으로 종속된 종교적 소수민족이다.

여기에 바로 IS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그리고

레반트 지역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정치가들과 학자들은 중동 기독교인들이 아예 조만간에 절멸(extinction)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살해와 박해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역사종교학자로 미래종교와 세계문제에 선두적인 해석자인 젠킨스(Philip Jenkins, 베일러 대학 역사학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기독교는 고난을 받을지언정 결코 절멸되지 않았다'는 교회사 전통을 통해 오히려 중동에서의 새로운 크리스천들의 성장이라는 지형 변화가 있다고 해석한다(Is This the End for Mideast Christianity?: For Mideast Christians, 2014 has been a year of bloody disaster. Are these churches on the edge of extinction?). 따라서 젠킨스 교수의 기고를 3회에 걸쳐서 전문을 소개한다.

많이 흐르자, 상당할 정도의 크기로 오히려 이들은 번성했다. 1914년부터 최근까지 크리스천들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이란) 전역에서 10% 정도나 됐고,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다양한 신앙들과 교단들의 산실이었다. 무슬림 국가인 오만만 제국의 종교 정책이 관용적이지는 않았다. 반대로, 크리스천들은 마치 자연이 주는 재난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박해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갑자기 한 순간에 바뀌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동안 대량 살해와 강제 추출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나톨리아(현 터키)에서 너무 많은 아르메니안, 그릭커뮤니티들이 사라졌다. 아르메니안들, 앗시리아인들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에 대한 살해와 박해로 인한 아사가 이뤄져, 1915년부터 1922년 사이에 무려 2백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죽어나갔다.

새로 등장하는 아랍 국가들 역시 크리스천들에 대해 노골적 박해를 시작했다. 1933년 이라크는 앗시리아 사람들을 대거 살해해, 당시 변호사였던 라펠 렘킨(Raphael Lemkin)은 "대학살(Genocide)"라는 신조어로 이라크의 무자비한 만행을 지구촌에 고발했다. 중동 지역에서의 팔레

중동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2014년은 대재앙의 해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난 1월초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지대를 무력 장악하면서 돌연 나타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언론은 ISIS 또는 ISIL이라고 표기한다)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들-아시리아동방교회, 칼데아가톨릭교회, 시리아정교회 등-을 야만스럽게 탄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라크 크리스천들은 1991년 제1차 걸프전쟁을 겪으면서 그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1915-1922년 터키내 기독교인 2백만 명이상 학살 이집트 남부 8백만명 콥틱 크리스천 최대위기 맞아

지난한 세월을 버텨낸 사람들은 모술을 중심으로 이라크 기독교의 기반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그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유대인에게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 이라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크리스천들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이나 담벼락에 아랍어 알파벳 N 표시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랍어 '나자라'(Nazara)의 머리글자이다. 중동에서 '나자라'는 '나사렛인' 곧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뜻한다. 또한 시아파 무슬림의 집에는 R 표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거부자' 또는 '반대자'를 뜻하는 아랍어 '라피드'(Rwafidh)의 머리글자다. 이라크 크리스천들과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의 공공연한 살해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지난 6월 10일 모술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 터를 두고 수 세기를 이어 내려온 기독교 공동체들과 교회들은 철저한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라크에서 기독교의 마지막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는 거대한 교회의 한 부분이다. 7세기에 이슬람은 중동에서 세력을 잡았고, 불과 몇 세기만에 중동에서 절대적인 다수가 됐다. 따라서 무슬림식 정치제도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제한된 활동 환경 안에 있었지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콥틱 총대주교와 바그다드를 기반으로 한 동방정교회는 여전히

히 지구촌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였다. 14세기 박해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폭력화 양상을 띠기까지, 콥틱교회와 동방정교회는 500년 이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을 통해 소수로 남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스타인의 분할과 이어지는 위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오는 고대 기독교 세력들이 급작스럽게 위축되는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의 크리스천의 현대사는 바로 "축소와 붕괴"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였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Online 강의 Blended 강의



### 사상 최악의 성적표 받은 오바마 대통령

(1면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뭔가 성취하고 싶다면 행정부 내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리더십도 하고 타협하기도 해야 한다. 정치판 때로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고, 강력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중간선거 성적표가 나온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하거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의회와 협력하는 것과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급선무다.

오바마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될 첫 번째 시험은 ‘이민개혁’ 이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달 하순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민개혁 외의 우선순위를 추진하려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

지 이민개혁을 밀어붙일 것인지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에 후보자 지명 과정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성애자 권리, 이민, 경제, 경제제 평등 등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과제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기억될 사실은 2014년의 민주당이 경기침체를 상징하는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년간의 경제적 재앙을 대표한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적 절망을 상징하는 당이 됐다. 그런 당은 언제나 패배한다는 것을 2014년 중간선거

에서 배운 확실히 배웠다. 현대 미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은 전반적인 하향식 정치의 실패다.

보통 ‘경제성장’은 경제학자들이 측정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그 데이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계속해서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칭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통계전문가들마저도 이를 느꼈다. 선거 전날 연방정부가 발표한 10월 고용보고서의 한 문단에서 행간을 읽어보자.

“9월 경제실업자는 220만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계절 조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인구에 속하지 않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노동이 가능하고 지난 12개월 사이에 구직 활동을 했던 이들이다.”

이런 현실이 민주당을 죽였다. 오바마 정권 덕에 일반인이 알게 된 경제 전문용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좋지 않은 현상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십년간 미국 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3.3%를 기록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다(세계은행 자료): △2009년: -2.8% △2010년: 2.5% △2011년: 1.8% △2012년: 2.8% △2013년: 1.9% 이런 성과를 내면 패배한다. 2014

년의 성장을 증가는 민주당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다. 민주당에게 경제는 이미 써버린 카드였다.

경제성장률이 미국 역사상 평균 아래에 머물도록 놔두는 것이 정권을 잡은 정당에게 죽음의 뜻이나 마찬가지라면 민주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정치적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상원의원들을 낙선시켰다.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성장의 뿔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도 모른다. 2014년에 당선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제대로 된 우파의 승리다. 그 질이 크게 향상됐다. 벤 사서, 톰 코튼, 코리 가드너 등은 2010년 선거의 끌어오르는 젊은이들이 아니지만 공화당의 기득권층도 아니다.

결국 의회에서 우위를 점한 공화당은 한 가지 일을 해내야 한다.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는 일이다. 오바마 정권의 민주당이 잠궀버린 모든 밸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착상태다. 유권자들은 미국 정체가 일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투표를 한 게 아니다. 미국 정체가 자신들을 일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차이다. 2014년에 당선된 의원들은 이를 이해하길 기대한다.

### 소망 칼럼

### 의원아 너를 고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유대 속담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의숙한 속담이었을 것이다(눅4:23). 이 속담의 뜻은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속담은 당시 존재했던 유명한 속담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행하라”는 의사가 자기 병을 먼저 고치는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른 곳보다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행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사란 남의 병보다 자신이 병을 먼저 고치려 한다. 자기가 병들면 상태에서 남의 병을 진료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새 생활 하라고 전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인격이 변하여 새사람 되고 개선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이 “의원아 너를 고치라”고 한 것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못 믿겠다는 불신앙을 표현한 말이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못 믿겠다는 식의 표현이 많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불 들어 줄 것이 아니냐?” 등의 말이 그것이다(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우뚝 선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 그러나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보여줄 것 없이 들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신앙의 족속들은 들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꼭 피부에 닿도록 체험해야 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들음으로 보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는 들음으로, 봄으로, 또 성경의 증거로서 충분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가 현장에 없어도 지나간 일이라도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지 못했어도 사복음서의 기록을 읽음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빈 무덤을 봄으로써 충분하다. “의원아 너를 고치라”함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적 반발에서 비롯된 말이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비하당하고 멸시받고 매맞고 수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로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증거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절대로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 평소 생활 속에서 자연 현상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는 증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심령은 변화 받고 건강하고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함을 보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 곁에 늘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하는 일을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신다.

“센키에비츠(Henryk Sienkiewicz)”의 “퀴바디스”는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목회 사역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네로 황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신변에 위험을 느낀 성도들의 간청으로 어느 날 새벽녘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하게 된다. 무사히 성을 탈출하였으나 환한 동이 터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이였다. 베드로는 황급히 앞으로 “퀴바디스 도미네”(quo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하고 물었다. “네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고 그 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성도들이 고통 받고 핍박 받고 희생당하는 일을 모두 다 주님이 곁에서 보고 계신다.

### 남성보다 오래 사는 여성...이유는 모른다!

(1면에서 계속)

“혈구에서 Y 염색체를 많이 잃은 남성은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생존율이 낮다.”

심장질환도 여성보다 남성이 생을 더 빨리 마감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심혈관 문제가 있는 55-65세 남성이 1000명이라면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그 연령대의 여성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영국심장재단의 심장 전문 수간호사 에이미 톰슨이 말했다. 더구나 남성은 심혈관계와 관련해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생을 시작하는 반면 여성은 성장하면서 계속 도움을 받는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제거를 돕는다”고 데자르망이 말했다. “그런 이점으로 여성은 어느 정도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돈과 사회경제적 지위, 의료 수준,

일반적 생활방식도 남녀 수명의 불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영국 공공의료팀(PHE)의 지식·정보 책임자 브라이언 퍼거슨 교수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개인의 조기 사망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운동 부족, 과체중,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지역에 따라 달리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인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박탈감이나 우리 삶의 다른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영국의 건강연구단체인 킹스 펀드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탄탄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기대 수명’이라는 논문에서 킹스 펀드는 이렇게 지적했다. “가장 부유한 계층의 남성과 여성은 평균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보다 7년 이상 더 오래 살 수 있

다.” 실제로 PHE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사는 지역도 있다. 당연하게도 그런 지역은 대부분 부자 동네다. 톰 6 지역 중 세 곳이 런던의 벨 그라비아, 켄징턴, 첼시다.

그와 달리 부유하지 않은 지역에서 삶이 그리 행복하지도 길지도 않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에선 여성 대다수가 80세를 넘기지 못한다. 랭커셔주 서부 도시 블랙폴에선 남성의 평균 사망 연령이 73.8세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고 PHE의 퍼거슨이 말했다.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영국 남성의 경우 3.2년, 여성의 경우 2.4년이 늘었다.”

일부 국가에선 수명 연장이 더 놀랍다. 부탄의 경우 기대 수명이 1990년 53세에서 현재 68세로 늘었으며, 몰디브의 경우 60세에서 76세로 늘었다. 20세기 초의 수준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발전이다. 킹스펀드 보고

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1901년 영국의 기대 수명은 남성의 경우 45세, 여성의 경우 49세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남성의 기대 수명이 79.2세, 여성이 83.3세로 크게 높아졌다.”

기대 수명 상승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기대 수명이 영국 남성은 83.3세, 여성은 86.8세로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100세를 넘기는 영국인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2037년까지 영국에서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은 여성 7만7000명, 남성 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믿기 어렵지만 영국에서 2013년 태어난 어린이 중 3분의 1은 생일축하 케이크에서 촛불 100개를 불어 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그 파티 참석자 중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겠지만 말이다.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고 있다.

현재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천 커뮤니티는 바로 8백만명 정도의 콕트 크리스천들이고, 이들은 이집트 남부 지역들에서 유대를 다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위기 상황들 때문에, 이 지역 역시 곧 밀어닥칠 내전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계속)

### 기독교, 고난 받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2면에서 계속)

지난 세기가 다 지나갈 무렵, 중동에서의 기독교는 2개의 커다란 교회 전통을 지닌 중심들이 있었다. 바로 이집트의 콕트와 시리아와 레바논이 중점되는 지역이었다. 지금 이 지역들은 수많은 망명 교회들의 온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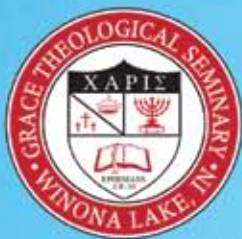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점점 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의 검은색 국기들이 레바논에서까지 펄럭거리게 될 정도다. 레바논 정치가 윌리드 줌브라트(W Jumblatt)는 크리스천들과 자신의 동족인 드루즈 파(이슬람교 시아파의 한 분파)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멸될 가능성에서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극단 이슬람주의는 계속해서 북상 중이다.

얼마나 이러한 불길한 상황이 진전될까? 이 지역에 사는 모든 크리

스천들은 그 대답을 알고 있다. 바로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번성했다가 강제로 쫓겨난 유대인들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로 이집트에서의 유대인 숫자는 10만명에서 50명쯤으로 줄었고, 이라크에서는 9만명에서 정말 한두 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2013년, 이라크 칼데아(Chaldean) 주교 사코(R Sako)는 “만약에 이러한 상태로 크리스천들의 이주가 계속된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중동에서는 더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남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예의 바른 고품

어떤 지혜로운 청년이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청년은 얼마 가지 않아 고품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청년은 '죽은 척하면 고품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숨을 죽이고 누

워 고품이 지나가지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차구니없게도 청년과 마주친 고품은 세상에서 가장 예의바른 고품이었습니다. 고품은 청년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썰렁한 이야기이지만 작곡에 예의를 잃어버리고 무례

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교훈과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경상도 영양이라는 곳에서 젊은 시절 목회를 하였고 때 일입니다. 먼 곳에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가정에서 아내와 저는 그 가정을 심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내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완전한 한옥이었습니다. 저희내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점잖은 목소리로 "기다리시지요"라는 짧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문이 열렸고 저희내외는 문을 열어주시는 어른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신은 갖에 한복을 곁에 차려 입으시고 고전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모

습을 하고 저희 내외를 맞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장을 보러갔으니 좀 기다리시지요. 제가 의관을 갖추느라 좀 늦었습니다. 귀하신 어른이 오셨는데 이리로 오시지요" 정중히 저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뒷마루에 먼저 오르시더니 저희를 향해 큰 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 저희 내외를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시다니 사양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정을 심방하면서 다른 가정들도 손님을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혹여 저희에게만 베푸는 예의인가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가정들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

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예의 바른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풍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조차 예의 없는 행실로 세인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티켓(etiquette)이라는 말은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 estiquer(붙이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는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편지형식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어 궁중의 각종 예법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해 갔었다는 견해입니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궁전에서 용변을 보는 곳을 안내하는 표지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당시 베르사유궁전에서는 날마다 연회가 열렸는데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이 건물 구석이나 정원의 풀을 뜯는 나무 밑에 용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궁전의 정원관리인이 정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변을 보러가

는 통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웠고, 루이 14세가 이를 따르도록 명령함으로써 이를 지키는 것이 '예의를 지킨다'는 뜻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켓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경애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줄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돕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에티켓의 기본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함 마음에서 비롯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 호감을 주는 행동, 상황을 잘 살펴 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실리온 벨리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직 사원을 위한 에티켓 교육이 있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 푸 / 른 / 초 / 장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세상사는 희비가 있고 때로는 자기만 겪는 삶처럼 생각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살고 고달파도 칠칠팔팔이 오뎅이처럼 일어나서 도전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본문에 엘리사는 요단강 골짜기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림자를 벗 삼아 농사를 짓는 무명 농부였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고동락 반세기 북방국 예언자로 나중에는 스승 엘리야 따라 감정의 영감을 받아 외국까지 그 명성을 떨친 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1.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2. 스승을 따라 벨엘로 갔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

뽀족력으로 무너뜨린 곳이다. 오늘 날 성도의 길이 길갈과 벨엘을 통과했지만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여기고는 '향방'이란 뜻인데 가시와 엉겅퀴에 찢리고 우겨쌈을 당해도 장미의 향기는 변함 없듯이 성

단지 덩든지 결단성 있는 믿음(계 3:15)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칩시다.  
4.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멈추지 않는 스승, 오지 말라며 뿌리치는 스승을 따라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으로 따라 갔던 결단성 있는 엘리사였습니다. 변덕이 주 풀 뜻하는 갈대 같은 신앙, 유람선 신자, 지식 없는 교만자, 지식있는 교만자 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빌2:3), 예수님을 배워서(마11:29),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야1:22).

개의 강을 도강했는데 홍해는 죄를 씻는 세례상이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불신앙을 청산, 하나님 중심으로 가나안에 새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스승과 제자가 요단강을 건너 대화 중 불만이 나타나 두 사이를 떨어지게 한 후 회리바람을 통해 엘리야는 산 채로 승천하면서 결실을 맺어주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결실을 주워 옷을 받아 스승 못지않게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였던 것이다(왕4:9).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과 혼돈의 시대라 한다. 세상 향락을 쫓던 소돔 고모라, 정욕을 쫓던 바벨탑, 명예

개(야4:14) 같은 인생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고(갈6:7),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고(살후3:10). 성실과 최선을 다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8). 개미처럼 자기만 모으고, 거미처럼 자기만 먹지 말고, 꿀벌처럼 자기도 주인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삼시다. 어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있어야하고 필요로 하는 선한 엘리야의 결실을 살리는 의지와 노력을 우리 모두 사명으로 알고(눅10:25-37) 삼시다. 목사, 제직, 성도답게 소금과 빛의 사명 망각하지 마시다. 영국 처칠 수상이 옥스포드대학 졸업식 강연에서 세 번이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예수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시어 36차례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여섯 시간 매달리어 가진 수모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 않음으로 멸망받은 인류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 수많은 선지 사도 성도들이 십자가를 포기 않고 승리의 자취를 남겼다.

# 포기하지 마시다 (열왕기하 2: 1-6)

1.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곳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던 중 요단강이 가로막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사히 거친 곳으로 여호수아가 12돌을 취해 12지파를 상징해 동편 길갈에 두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자손손 기억케 한 곳이다.  
길갈의 뜻은 '회전한다'는 뜻이다. 영적으로 인생은 돌고 도는 세상이라, 음식이 양지되고 양지가 음식이 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를 체념할 것이 못되는 것이 인생사다. '길갈'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되는 곳이다. 신앙의 정도는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2. 스승을 따라 벨엘로 갔습니다.  
3. 스승을 따라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던 중 철혈성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일곱 번째 돌던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무장

4.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 엘리사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에 당도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6.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3.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4.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5.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6.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1.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3.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5.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6.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8.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9.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0.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1.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2.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3.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4.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5.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6.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7.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8.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9.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0.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1.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2.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날짜** 2015년 1월 22일 ~ 2월 2일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1일 송주영 신사역 1월 15일 1월 22일 2월 1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6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2일 2월 29일	3월 1일 3월 8일 3월 15일 3월 22일 3월 29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 4월 29일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6월 1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6월 29일	7월 1일 7월 8일 7월 15일 7월 22일 7월 29일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8월 29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10월 29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9일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지난 11월 4일에는 미국 중간 선거를 통해 조용했던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 시민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선포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비록 중간선거의 전체적인 투표율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투표율로 인해 확실하게 지금 미국에는 선한 영향력이 다시 태동하고 있음을 투표 후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US뉴스에 의하면 네브라스카,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같은 12주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투표를 안했던 한인 크리스천들과 바쁜 가운데서도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룩한 정의감을 가지고 투표한 여한인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은 한인사회에서 영 김(최초 한인여성하원의원)과 미셀 박(최초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스티브 황보(라팔라 시의원, 재선), 제인 김(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재선) 한인 후보자들이

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성결혼합법화를 강력히 밀고 있는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라는 반기독교 단체는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번에 뒤집어진(reverse) 판결을 다시 연방대법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하원에 앉은 리더들이 전통적 결혼제도를 고수하는 정치인들이기에, 동성결혼합법화를 연방대법원에 다시 올린다고 해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llpc0316@gmail.com

**Q:** 현재 한국이 외국에 2만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첫 선교사로 파송 받은 자는 어느 목사님이며 어디로 파송 받았는지요?

**A:**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 받은 자는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기풍 목사님(1865-1942)입니다. 제주도는 물론 외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평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데다 예수 믿는 신자도 별로 없는 미션과 이상만 들끓는 신앙의 불모지, 특별한 선교지였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김명혁 목사님이 쓰신 "나그네 길에서 띄우는 목회편지"를 보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마포삼열 목사의 선언에 의하여 한국 최초 일곱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노회 셋째 날인 9월19일 김선주 목사의 사회로 열린 노회에서 제주도에 선교사를 한사람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하여 윤함애 사모와 함께 1908년에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제주도 선교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스러웠고 미신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잘 곳과 먹을 것도 얻지 못해 때로는 산기슭에 때로는 바닷가에 때로는 마굿간에 쓰러져 정신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와 윤함애 사모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제주도 주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으로 제주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흉수로 인해 강물에 떠내려가는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뛰어 들어 그 여인을 구한 적도 있었고 산속 동굴 안 구렁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때려눕힌 적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의 제주도 사역을 통해 제주도에 미신과 불신의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30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성공적이 제주도 선교 사역 뒤에는 윤함애 사모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수고와 있었습니니다. 이기풍 목사와 윤함애 사모는 제주도의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힌 두개의 새벽 별이었습니다.

(4면에서 계속)

그 교육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거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적 부분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는 사원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단순한 타인과 만날 때 읽는 의상예절, 식사예절, 대화법 등 기본예절이었습니다. 기본예절을 배워야 하는 그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들도 대인관계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예절이 점점 결여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모국여행에서 대선배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뜻하지 않게 후배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목사는 요즘 세상말로 잘 나가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는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후일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인사와 안부의 말도 없이 사라지는 후배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롬16:2) 적어도 지도자인 우리가 영양의 이르신처럼 과한 예가 아니라도 기본이라도 배우겠다고 열심을 내는 실리론 벨리의 젊은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캔터기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주 동성결혼합법화 반대 판결 문달은 텍사스 낙태시술소 자리에 '태아생명살리기' 단체 입주

만 빼고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낮아진 투표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주로 그동안 자유주의 민주당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투표를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잠잠했던 크리스천들의 투표율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니다. 특별히 30대 이전의 젊은이들의 투표율은 겨우 13% 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 비해 전반적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10%나 낮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한 리더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소중한 한 표로 미국 전역에 거룩한 변화의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 쉬운 싸움이 아닐 거라고 보수파단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tion 앞에 있는 Planned Parenthood 앞에서 40일 동안 건물 앞에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기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BIR(Bible Institute Research)에 의하면 뉴욕과 매사추세츠 다 음으로 97%나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비록 이번에도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게는 되었지만, 투표결과로만 이들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투표율이 지난 대통령 투표 때에 비해 무려 22.6%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평균보다 2배 이상의 투표율이 급락, 곤두박질한 것입니다.

몇달전,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결혼을 미국전역에 합법화 할지 말지의 여부를 하급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미루었는데, 이번에 6th Circuit법정에서 캔터기,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에 2:1로 승리하며 더 이상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아도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전 선거결과와는 몇년동안 "생명의 존엄성" 운동을 펼친 Pro-life단체들의 기쁨이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40 Days for Life"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펼치고 있는 단체를 통해 또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치 리더들은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하신 뜻과 의를 구하며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며, 그 리더들을 뽑은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US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44%의 투표율에서 이번에는 21.4% 밖에 투표를 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정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뽑혔던 Jeffrey S. Sutton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동성결혼합법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감당한 판사로서, "결혼의 정의를 법정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결혼의 의미는 각 주의 시민들에게 말

몇달 전에는 캔사스 미조리 주

##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주님의교회는 2012년 6월에 개척한 교회로서 현재 황성철 임시담임목사님께서 섬기시며, 약 장년 35명, 어린이/청소년/대학생 16명이 정기출석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ARP)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한 분 만의 영적권위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이민 1세와 2세가 함께 이 미국 땅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아래와 같이 제2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1. 정규 신학대학 Th.M 혹은 M.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ARP 교단에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담임, 부목사 혹은 선교사로 3년이상 경험 있는 분
4.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혹은 영주권 신청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신앙고백/목회철학/목회비전 등을 포함)
3. 최근 6개월 이내 음성설교 (CD or audio file)

**제출마감**

1. 마감일은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심사를 시작합니다.
2.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gsolordchurch@gmail.com
3. 전화문의: 박의현 청빙위원장 (336-254-9350)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통지 합니다.

주님의 교회 LCGG Location: 4900 West Wendover Avenue | Jamestown, NC 27282  
Inside of Life Community Church  
● (336) 995-7651 ● gsolordchurch@gmail.com

## 전도사 초빙 (2명)

**자격요건**

1. 전도에 투철한 사명이 있으신 분
2. 신학교 2년이상 재학
3. 전도사 자격증 소유자
4. 집사로서 5년 정도 봉사하신 분 (신학교 입학 보조와 자격증 취득 도와드립니다)

**제출서류**

1. 자기소개서
2. 재학증명서, 전도사 자격증 집사임명장

**서류제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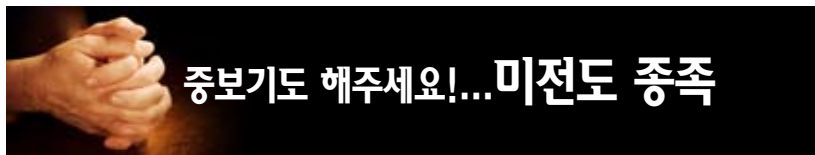
전화 하신 후 직접 내교 상담요망  
시간: 10am to 4pm  
교회 301 S.kingsLey DR #201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245-4090 213)798-9919

\*피아노 반주자 구함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발송됩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오 푸안(LAO PHUAN)



라오스에 살고 있는 라오 푸안은 98,000명이 넘으며, 이웃국가인 태국에 인 태국에 9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두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는 라오 푸안은 모두 푸안(Phuan)어를 사용하며, 푸안어는 디악(Diak)언어군의 치앙 사엥(Chiang Saeng) 방언에 속한다. 태국에서는 "라오푸안"이라는 말이 "이주한 라오인"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라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라오 푸안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정체성을 가진 라오족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 종족 집단이다. 라오 푸안은 자신들이 타이족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13세기경 타이족은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태국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접했다. 1827년에서 1980년까지 많은 라오 푸안인들이 전쟁포로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강제로 끌려왔다. 그러나 라오 푸안

족의 주류는 여전히 라오스에 남아 있다. 전쟁과 식민이 반복되는 역사로 라오 푸안족 사회는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라오 푸안족 사람들은 푸른 계곡의 기름진 땅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관개용법을 사용하고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고 산악지역에서는 화전법으로 짓는다. 일부는 대장장이와 같은 독특한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무역로와 가까운 마을사람들이 더 그렇다. 새로운 도로건설 프로젝트로 라오 푸안족이 시장에 더 쉽게 갈 수 있게 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부들이 도소매 상인, 기술직공, 공무원 등의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한다.

라오 푸안족은 한 계곡에 작은 마을을 이루 생활한다. 각 마을은 "차오 무웅(chao muong)"이나

군주의 통제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조세의 의무를 갖는다. 마을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마을 어른의 입회하에 마을 수장에 의해 행해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튼튼한 티크나무나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집에서 사는데, 가족에는 땅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 두꺼운 판자로 된 마루정과 기와지붕이 있다. 일반인들은 대나무 뼈대 구조에 흙바닥에 초가지붕을 얹은 낮은 집에서 생활한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마을 단합을 상징하고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절이다.

라오 푸안족 사회에서 기본 사회적 단위는 가정이며 가부장적이거나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균형이 잡히고 화목하다. 성에 따른 노동의 구분은 거의 없으며 모두 논밭을 갈고, 낚시질을 하고, 요리하고, 야기를 돌보고, 빨래를 한다. 일반적으로 라오 푸안인들은 성

실하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편이다. 또 검소한 생활을 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라오 푸안족의 생활에는 "공적을 세우는(merit-making)" 의식, 승려 입명식, 결혼, 집들이 등과 같은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태국의 방콕에서는 영혼들을 숭배하고 기념하는 "쌀자루 의식(ceremony of the rice packet)"이라고 불리는 큰 행사가 매해 행해진다.

신앙

태국의 라오 푸안족들이 주로 불교도인 반면 라오스의 라오 푸안족들은 전통 민족종교를 믿는다. 전통적 정령숭배 사상에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과 물체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수호 혼"(guardian spirits)과 "지역 혼"(locality spirits)의 존재를 믿으며 이것들은 사회 속의 다

양한 것들과 동일시된다. 이들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잘 달래야 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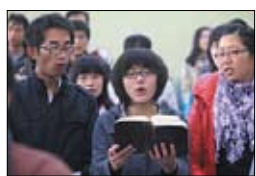
라오 푸안족 언어로 제공되는 기독교 자원은 전혀 없다. 두 개의 선교단체가 태국의 라오 푸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라오스의 라오 푸안족을 위한 선교단체는 없다. 라오 푸안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매춘 행위를 하거나 자녀들로 매춘 행위를 하게 한다. 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사랑, 수용을 경험하게 되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인 사역자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15년내 전세계 최대 기독교가 될 것" FT

중국이 향후 15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FT는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집적인 공식적인 크리스천은 3000만명이지만 실제로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를 합해 1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8670만명이다.



중국인 대다수는 불교 및 도교, 유교 신자다. 크리스천과 무슬림은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혁명 이후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을 용인하며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포교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천만명의 중국인 신자들이 교회회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에 숨어있다. 실제로 저장성 동부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 받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난징에는 중국 에덕기금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성경 인쇄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1억2500만부씩 성경을 발간했다. 에덕기금회는 지난 1987년부터 중국내 신자들을 위한 성경을 10개 중국 언어로 6570만부를 생산했다. 해외로는 70개국 90개 언어로 5930만부의 성경을 수출했다.

에덕기금회 성경출판사 추종후이 회장은 "(1980년대 초반)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중심을 뒀다"며 "일단 사람들이 어떤 삶의 표준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인 수행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 내 크리스천의 수요가 많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돈이 충분하

게 되면 삶의 의미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FT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기독교가 특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15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성결혼금지' 케이크제작 거부 업체 피소 위기

최근 미국에서 기독교인 제빵사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위협에 처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닷컴이 7일 보도했다. 이 케이크는 얼라이언스(Alliance)가 주최한 '게이 혐오증과 트랜스젠더 혐오증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됐었다.



평등위원회(The Equality Commission)는 어셔 베이킹 컴퍼니(Ashers Baking Company)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셔 베이킹 컴퍼니는 폴린과 카렌 맥아더(Colin and Karen McArthur) 부부가 소유하고, 그 아들인 다니엘 맥아더가 운영 중이다.

평등위원회는 지난주 어셔 부부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회사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고객을 화나게 하고 불평함을 끼쳤으며,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민법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니엘 맥아더는 "우리가 고객들의 주문을 거절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선정적·공격적 그림이나 비속어가 들어간 케이크 주문은 거절했다"면서 "이번 일은 전통적 결혼 가치에 대한 공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마치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자료도 많이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는 소규모 가족단위 사업체로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가졌던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평등위원회에 의해 무너진다면, 전통적 결혼 관점을 수호하는 시민들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모두 기독교적 신념과 원칙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년된 교회, 2470만불 부동산 차이

미국 뉴욕 부촌에 있는 200년 역사의 한 교회가 2,470만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 차이를 내 논란을 중심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파크아비뉴크리스천교회(Park Avenue Christian Church)는 최근 한 부동산 개발사와 마무리 중인 신축 협상을 통해 최소 247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는 뉴욕 센트럴 파크 인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다. 이곳은 맨해튼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졌다. 교회는 예배당 바로 옆에 딸린 회관에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을 승인했다. 회관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다. WSJ는 교회 신축 개발이 애당초 논란이었다고 보도했다. 학부모들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쫓겨나기 때문이다. 또 개발사가 콘도를 돌출된 구조로 지을 것이라고 발표해 교인들은 건물 일부가 교회 지붕 위를 지나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겼다. 개발사는 논란이 되는 건축 양식을 없던 일로 하고 일자로 솟은 16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수정안으로 불만을 최소화했다.



1810년에 세워진 동 교회는 사회 정의에 많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 유명했으며, 남북전쟁 시는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교회는 이번 수익을 노숙인과 노인 사역 및 오래된 교회 보수를 위해 사

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5분간 죽었다 살아난 엄마... "기도가 날 살려"

수술 후유증으로 45분 동안 심장박동이 멈춘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망선고 직전의 아기 엄마가 다시 살아난 뉴스가 최근 AP등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의 간절한 기도와 의료진의 끈질긴 노력에 이뤄낸 기적이라고 말한다.



플로리다주 디어필드비치에 사는 루비 그라페라 카시미로(40)는 9월말 제왕절개로 건강한 딸을 얻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환희에 젖은 것도 잠시, 그녀는 양수 색전증 때문에 곧 실신했다. 분만 중 양수가 산모의 혈중으로 들어가서 급성쇼크, 출혈 등을 일으킨 것이다.

의료진은 3시간 동안 카시미로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작별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병실에서 모여 기도했다. 그러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려는 순간,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숫자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십 분간 심장 박동이 없어 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현재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다.

카시미로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의료진에게 감사했다. 하나님께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어떤 힘이 '넌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뉴욕 스토니브룩의과대학 소생연구소의 샘 파니아 박사는 의료진의 노력이 카시미로를 살렸다고 말한다. 그는 "의사들은 보통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하지만 40분 이상 소생술을 할 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제 4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  
이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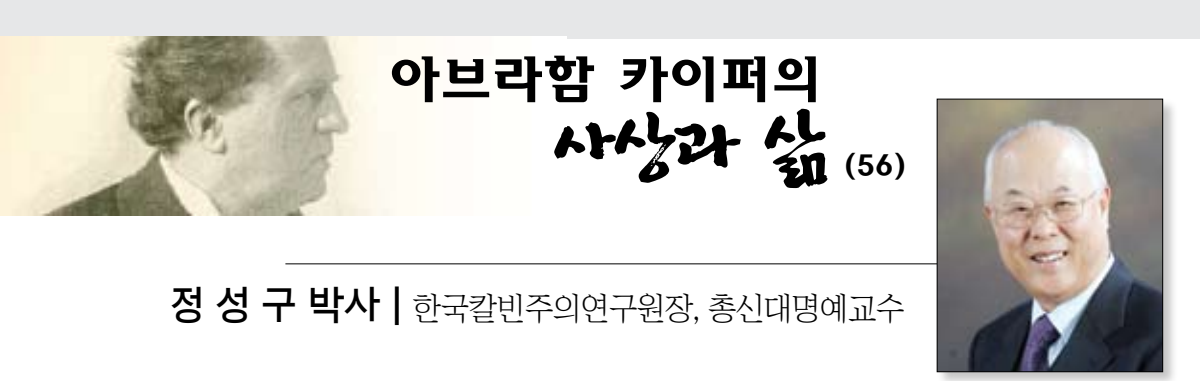
- 일시** 2014년 11월 16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주안예교회 (담임 최혁 목사)
- 주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문의** 교회 (818)368-9883/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735-3111 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6)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성령의 사역범위, 성령과 창조 그리고 재창조

#### 성령의 사역 범위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며 전 교회적이며 모든 구원운동에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이란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개인의 영적 감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 구속, 보존, 성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활한 사역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카이퍼는 이 책을 씀에 있어서 특히 존 오웬의 저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종교개혁시대부터 그때까지 나온 80여권의 책을 탐독하고 쓰인 것이라고 했다.

카이퍼가 그의 책 총론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개요하면 이렇다. 우리의 관심사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선택한 자들을 새롭게 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

역은 말씀의 성육신과 메시아의 사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상관되지 않을 수 없다(het werk

der Heiligen Geester moet ook raken aan heel heir oles hemels en der aarde).

카이퍼의 주장은 성령의 사역이 교회의 성화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제한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광활한지,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성육신에 관여하고, 성경의 기록, 교회의 탄생, 천지창조에 나타났으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까지 관여하신다.

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 은혜로(eeuwiglijk Vrijmachten genade) 얻어졌으며, 얻어지는 것이요,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가 구속 받은 후 성화(聖化)의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천지 창조에서 영원까지 계속 된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교리를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원리(het Gereformeerde Grondbeginsel)라고 주장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반적인 지식은 창조 사역은 성부의 것으로, 구속사역은 성자의 것이며,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구분한다. 이런 작용들은 창조, 구속, 성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존재라는 사상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반면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성화케 하시어서 활동에 어떤 구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보다 넓고 포괄적이다.

1898년 카이퍼가 프린스턴 대학의 스톤렉처에서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을 할 때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다. '살

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한다. 피조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성령의 사역은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에도 관여하셨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부여하셨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삶에 역사하되, 평상적인 기술, 노동뿐 아니라 인간의 보다 높은 영역의 지식과 정신적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술은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이다(kunstraardigheid is geen gedichtsel van menschen, maar een schieping Gods).

카이퍼는 예술이란 사람의 사상과 목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종의 재료들로서 어떤 기량의 가능성을 부여하신 것으로 보

조에 있다. 성령의 사역은 창조에서나 재창조에서 똑같은 성격으로 행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중생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 외에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사역의 또 다른 활동은 은혜의 영역에 있다. 성격상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에 나타나고, 은혜에 있어서는 재창조를 나타낸다. 그때 성령께서는 치료자로서 타락자를 회개시키려고 은혜의 전달자로 오셨다. 성령께서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만약 성령강림이 오순절에만 있었다면, 구약에서 어떻게 성령의 구원 작용이 있었을까? 그 해답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발견된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를 많은 준비시대를 통해 성취하였으며, 계시와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한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백성을 준비하시고 보존하시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주로 오시도록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창조 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드라마의 한 가운데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이것이 카이퍼가 본 성령사역의 보다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성령 사역은 말씀의 성육신과 메시아 사역 포괄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구속사에 개입해 은혜 주심

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칼빈주의도 무력하다'는 요지의 메시지는 카이퍼가 성령의 사역에 얼마나 폭 넓은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 성령과 창조 그리고 재창조

성령의 사역은 피조물 그 자체

았다.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임의로 수여됨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재능의 수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임의로 수여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이 재창조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참으로 표준점이 될 요소는 재창

### 가정사역 칼럼



#### 두려움 극복하기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많은 문제는 두려움인 것 같다. 자녀양육에 대해, 건강에 대해, 재정문제에 대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 아답이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으리라... 그저럼 주변을 둘러보면 두려움의 지배를 많이 받고 두려움에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건전한 두려움 vs 불건전한 두

려움  
두려움에는 건전한 두려움과 불건전한(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 달리는 차를 두려워하거나 마구 돌아다니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건전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나 실제 나타나지 않은 허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건전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의 마력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의 포로로 불들려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 필자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때 내게 도움이 되었던 문구가 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었다. 이 문구는 지금도 내가 머안거리며 두려워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문구가 되어있다.

두려움은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려움은 마음 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케틀라인 리프 박사는 두려움이 "1400가지 이상의 육체적 화학적 반응을 촉진하고, 30가지 이상의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키며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다.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면 온몸에 독한 화학물질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몸은 쇠약해진다.

####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즉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어"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마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

하게 한다. 두려움에 오래 갇히게 되면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곧 두려운 느낌과 상관없이 뜻뜻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맡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수1:9).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신 사명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야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다.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11:6).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갈등과 두려움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할 때 믿음은 우리 삶에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자

신감과 활력을 준다.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진리를 믿어야 성경에 수많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롬8:31).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시118:6).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1:7).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며 체대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진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진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루 503면 / 16,000원



스פק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도대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물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자들의 여러 가지 딜레마들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잠으로 독특하다는 것이다. DNA 만 보면 침팬지는 고릴라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더 닮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침팬지의 삶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고릴라와 유사하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고릴라나 침팬지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일까?

많은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다른 유인원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1994년 타임지에 "어떻게 사람이 시작되었나"라는 특집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차이는 단 하나도 없다." 논리, 언어, 탐구심, 궁극성, 배움, 종교성, 도덕성, 무신론, 창조성, 상상력, 열망, 유머 등의 엄청난 차이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더 발달되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 창조과학 칼럼 (212)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21)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자의 엄지손가락

존재가 디자인한 창조의 결과가 아닌가?  
유사성에 속으면 안 된다. 동물들도 소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한다. 개나 침팬지들은 신호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부사 등의 문법을 갖춘 언어를

과 마찬가지로 유사성이 있지만 같은 능력이 아니다. 침팬지가 이빨로 날카롭게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사냥을 하며, 이보다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까마귀들도 있다. 비버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훌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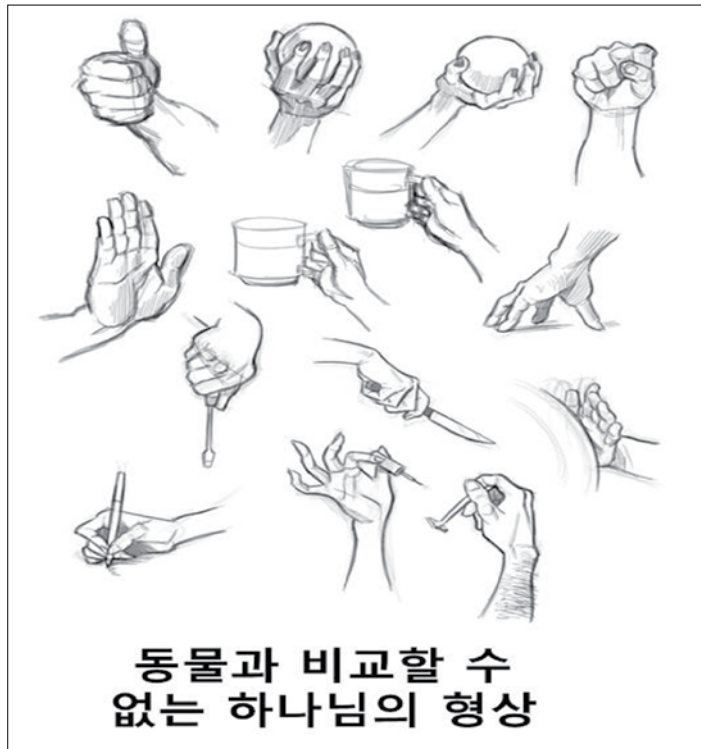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두 발로 걷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은 자유로운 두 개의 손이 있다. 각 손은 27개나 되는 뼈로 되어 있어 58가지나 되는 동작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 디자인 할 수 없는 기관이다. 다른 손가락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엄지손가락은 다른 유인원들과 확연하게 다르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의 맞은편에 있을 뿐 아니라 길어서 다른 네 개의 손가락을 힘있게 마주 대할 수 있고 망치질 뿐 아니라 바늘귀에 실을 꿴 세밀한 동작도 가능하게 한다. 손가락들에는 근육이 없고 인대로 연결되어 있어 날렵하게 피아노와 기타를 칠 수 있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주는 것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닐 것이다.

손뿐만이 아니다. 인체 해부를 통해 처음으로 사람의 신체 구조를 알게 된 다빈치는 이렇게 외쳤다: "인체 구조는 넘침도 모자

## 사람과 동물 차이: 논리, 언어, 창조성, 탐구심, 종교성, 도덕성 등 무형 특성은 돌연변이나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의 유인원(apes)들은 힘이 사람보다 훨씬 세다. 두 살 침팬지도 여자 성인보다 쥐는 힘(약력)이 더 강하다고 한다. 빠르게 대해서도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가장 빠른 육상동물로 알려진 치타는 시속 120km로 달린다. 단거리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할 때 속도가 시속 45km에 불과하다. 사람은 독수리처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날개가 있어서 스스로 날지도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까?

개인용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1980년대 초 1세대 CPU인 086에서 시작해서 286, 386, 486, 펜티엄, 펜티엄프로, 펜티엄4 그리고 8세대인 인텔 코어까지 변화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컴퓨터의 진화'라고 말한다. 진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대로 적용한 말은 아니지만 각 단계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뇌의 능력, 언어 능력, 두 발로 걷는 능력,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컴퓨터의 진화와 유사한 진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컴퓨터의 CPU 능력 향상은 우연히 발생한 진화가 아니라 지적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사용하는 동물은 없다. 컴퓨터의 CPU의 격이 다른 것처럼 문법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컴퓨터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 Daily, 2013. 4.10)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침팬지는 그렇지 않다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언어학 교수의 연구결과를 전하고 있다. 목소리를 사용한다고 모두 다 같은 언어가 아닌 것이다. 도구 사용 능력도 언어 능력

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고 이집트의 독수리는 타조 알을 깨는 데 돌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들의 능력은 전수하는 과정도 없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습득하는 타고난 능력이며 자자손손 변화가 없다. 동물들의 이런 도구 사용 능력의 유사성 때문에 사람의 도구 사용 능력을 진화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사람은 독특하게 명석한 두뇌 뿐 아니라 그 생각을 적용할

람도 없는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 영감을 통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깎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시139:13-18).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차이는 논리와 언어, 창조성과 탐구심, 종교성과 도덕성 같은 무형의 것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돌연변이라는 과정이나 유전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요구한다. 침팬지, 까마귀, 비버 등이 어떤 능력을 근본적으로 타고 나듯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image of invisible God)'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에 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무생물들을 정복하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창1:28).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다.

## 기고칼럼

**정정숙 박사**  
(대화기술 전문가, 패밀리터치 원장)

### '대화는 첫 번째 배워야 할 인간관계 기술'

대화를 처음 배우는 곳은 가정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흉내 내면서 대화를 배워갑니다. 제대로 된 대화인지, 잘못된 대화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배운 대화의 패턴으로 평생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가져다주지만 잘못된 대화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건강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관계를 파괴하는 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또한 자신의 대화 패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족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면서도,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대화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은 대화를 잘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못하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그 장로님은 대화의 대지도 모르는 분'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그 집사님과 대화하려면 속이 터진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기술을 배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배워야 할 기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기술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기술'을 배우기 원한다면, 다른 기술들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악이나 그림, 건축이나 의학, 공학의 기술을 배울 때처럼 말입니다. 기술 습득의 과정을 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이요 둘째는 실천의 습득입니다. 이 습득을 통해 조금씩 병든 대화패턴이 건강한 대화패턴으로 바뀌지는 것입니다.

30여년의 연구 끝에 대화의 이론을 정립하고 11가지 대화의 기술(Mastering the Mysteries of Love)을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Bernard Guerney 박사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저는 거니 박사와 함께 대화기술 워크북을 저술하고 대화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강사인 Mary Ortwein 여사로부터 직접 대화기술 훈련과 코치를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 다. 그 후 강사를 훈련하는 National Seminar Director가 되었고 곳곳에서 대화기술을 가르친 결과 많은 부부와 부모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열리는 '대화기술 강사교육'에 많은 부부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가해서, 자신의 대화기술을 향상시키므로 가족들은 물론 교우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기술 강사교육 문의: (201)242-4422 or familytouchusa@gmail.com  
'행복한 가족대화' 특강/11월 16일(주) 오후 4시/퀸즈 장로교회/강사 정정숙 박사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목회서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1847년에 세워진 브루클린테버너클(Brooklyn Tabernacle)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세워진 지 167년이 되었는데 교회의 오랜 역사만큼 아픔도 많았습니다. 교회건물이 천동 번개와 화재로 두 번씩이나 전소되었고 한때 6000명 들어가는 테버너클(예배당)을 건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짐 심발라 목사가 부임한 1971년 가을에는 출석 교인이 3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주

위의 브루클린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가난, 알코올과 마약 중독, 깨진 가정 등의 문제들로 힘겨운 싸움을 하며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버너클교회는 브루클린 지역의 명소이며 등록교인의 수가 16,000명이나 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뜨거운 찬양입니다. 교인의 대다수가 흑인

들이어서 그러지 저들의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브루클린테버너클 찬양대는 16장의 앨범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그래미상'(Grammy Award)을 네 번이나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심발라(Cymbala) 목사님부부께서 시무하십니다. 아내 캐롤(Carol) 사모님은 찬양대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으며 남편 짐 목사님은 패배의식으로 사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 노숙

자들, 거리의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변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천 명씩 모여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화요기도모임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통성기도에 뒤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그리고 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장차 천국에서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의 예고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

기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했을 때 닫혔던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렸고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며, 가뭄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엘리야가 장대비를 맞는 기적을 경험했고, 물고기가 벅속에서 기도한 요나는 육지로 다시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인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1140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140'이란 하루(1)에 한 번(1) 4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물론 '1140'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오후 1시에 1분 기도를 40일 동안 하겠다.' '오전 11시나 오후 11시에 40일 동안 잠시 기도를 하겠다.' '매일 11시 40분에 기도하겠다.' '1일 1시간 40일 기도하겠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식사(한 끼 혹은 하루,

음료(커피, 차), 전자게임, TV, 컴퓨터,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 등의 급식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캠페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27:8).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브루클린교회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해봅니다.

2014 중간선거 한인정치인 대거 당선

뉴욕, 캘리포니아 등 17명...기독교인 다수

지난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남가주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선출직 공직에 당대한 도전장을 던진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누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전역에서 한인 출마자 25명 가운데 17명이 당선 또는 재선에 성공함으로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유권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당선자 중에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뉴욕에서는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존 최는 미네소타 랍자카운티에서 지역감사



2014중간선거에서 남가주지역에서 당선된 크리스천 정치인들 (사진 왼쪽부터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최석호 어바인 시장, 영 김 주하원의원, 미셸스탈 박 OC 수퍼바이저, 샌드라 이 사이프레스 교육위원)

로 선출됐고 마크장은 메릴랜드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남가주 출신

최초 한인 주 하원직에 출마한 영 김 집사와 주하원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부위원장으로서 제2지구에서 수퍼바이저로 당선돼 한인 정치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5명으로 구성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리토스장로교회 황보연준 원로목사의 아들로 알려진 스티브 황보 장로는 라팔마 시의원으로, 그리고 베델한인교회 집사인 최석호 어바인 시장, 제인김 현 샌프란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구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로 단체명 변경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35대 회장 윤우경 집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 이하 연합회) 제 35회 총회가 지난 9일 오후 5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임원 및 이사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총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회보다는 각 구역이나 셀처치, 혹은 다락방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를 OC 기독교평신도연합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신복수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정창섭 부회장의 기도, 노경도 목사(자문위원)가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롬 6:12-18)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초대회장이었던 양문국 목사(당시 장로)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총회는 초대이사장을 지낸 방인호 장로가 개회기도와 유재원 부총무의 회원호명, 34대 회장 신복수 장로가 개회선언을 함으로써 시작돼 각 부 보고와 회의를 통해 연합회헌장명을 OC기

독교평신도연합회로변경하기로 하되, 영어명은 OC Korean Christians Association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5대 회장에 윤우경 현 이사장을 인준하기로 만장일치 동의하고 부회장 3인 인준에 대해 윤우경 신임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윤우경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80세 고령임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합회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2014년 한해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큰 모범을 보여준 신복수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35대 신임임원진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토) 오후 5시, 35대 회장 및 33대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가질 예정이다(장소 추후 발표). 자세한 것은 이메일 ockca35@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OC평신도연합회)



KFAM 포스터케어 아동들을 위한 선물 후원 및 한인봉사의 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에스페송 매니저가 설명하고 있다

KFAM 포스터케어 아동대상 선물 후원 NetKAL과 공동으로 100명 선물 준비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가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 후원금 모금을 실시한다.

KFAM 포스터케어 프로그램의 에스페송 매니저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아픈 날"이라며 "본인이 갖고 싶은 선물을 말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선물 희망 리스트도 양말이나 속옷 등 소박한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KFAM은 한인 차세대 리더 모임인 넷캘(NetKAL)과 함께 아시아 아동 100명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스페송 매니저는 "DCFS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는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외로운 날이자 고통스러운 날이다. 많은 분들이 카다리아저씨가 돼 아이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원자 1인당 후원금액은 50달러로 책정됐다. KFAM에서는 모금된 후원금을 포스터케어 아동들에게 받은 희망리스트에 적혀있는 물품들을 구입 포장해 오는 12월 19일 크리스마스 파티 때 포스터케어 아동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후원 모금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며 50달러 체크를 한인가정상담소(KFAM)로 적고 메모란에 'Christmas drive'라고 적어 우편(3727 W.6th st, #320, LA CA 90020)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후원은 웹사이트(KFAMLA.org)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한인 1.5세와 2세 250여 명이 소속돼 있는 넷캘은 8일 '미주 한인봉사의 날'을 맞아 가정상담소에서 위탁 아동들을 위한 첫 번째 선물구입 및 포장봉사를 실시했다.

문의: (213)235-4861 에스페송

(박준호 기자)

시스코 수퍼바이저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외에 LA사랑의교회 집사인 샌드라이 후보가 사이프레스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들 당선자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미국에 건국정신인 청교도 정신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 제21회 정기연주회가 ANC온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악과 함께...여성합창단 등 찬조출연 남가주장로성가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성황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김성일 장로, 지휘 김원재)이 주최한 제21회 정기연주회가 9일 오후 6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성일 단장의 환영사와 유진소 목사의 말씀과 기도 후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남성합창, 남성중창, 혼성합창 등의 순서로 가졌으며 카마여성합창단(지휘 송종현)과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찬조 출연해 남가주장로성가단의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또한 장교와 복연주자 김수미 씨

가 함께해 합창에 국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등 21회를 맞이한 남가주장로성가단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사도신경'과 'I Love you Lord'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유진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이날 살롬장예인선교회, 푸른초장의 집, 율타리선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커뮤니티 봉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남부개혁신대원 박사과정 세미나 성료

지난 2일 저녁 6시부터 한 주간 동안 실시된 남부개혁신대원 LA 캠퍼스(President John H. Kim: 김희창 박사)의 교차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선교학박사과정(D.Miss), 목회학박사과정(D.Min) 연합 집중수업 세미나가 새 강의실(2975 Wilshire Blvd., #630)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장영규 박사(뉴욕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김수영 박사, 노세영 박사, Kathryn Koo 박사, 이창배 박사, 김희창 박사 등이 강사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동 신학교는 2015년도 1월 12일부터 봄학기 개강하며 B.Th(신학사), M.Div(목회학석사), M.B.S(성경연구학석사) 과정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bostonch@hotmail.com (213)219-064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부개혁신학대학원)



남부개혁신대원에서 신학생경해석론을 강의하는 김수영 박사.



한국동요 90년 미주한인과 함께하는 동요콘서트가 LA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동요 90년 미주한인과 함께...

서울 YMCA 주최 미주동요사랑회 주관

서울 YMCA(회장 안창원)가 주최하고 미주동요사랑회가 주관한 '한국동요 90년 미주한인과 함께하는 동요콘서트'가 LA한국교육원에서 8일 오후7시30분 성황리에 열렸다.

문혜원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남가주든든한교회 꿈나무 한국교회 합창단 솔라데오 리틀싱어즈(지도 임보희), 서제나 어린이(윌튼초등학교), 코헨가초등학교 합창단(지도 이혜자), 셋별중창단(지도 이현숙), 미주동요사랑회중창단이 출연해 '모래성', '오솔길', '방울꽃', '우주자전거', '다섯글자 예쁜 말', '나란히 나란히', '고기잡이' 등을 불렀다.

또한 '꽃밭에서'와 '푸르다', '새

싹들이다', '반달' 등을 이날 모인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부르며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창원 서울YMCA회장은 "이번 콘서트는 미국 뉴욕, LA, 시카고, 델러스는 물론 일본 중국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잊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주고자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콘서트에 LA지역의 어린이들과 가족, 이웃이 하나가 되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족동요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패밀리터치 제 6기 자녀양육 강사교육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6기 자녀양육 강사교육이 12월 5일(금)과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패밀리터치 뉴저지 사무실(240 그랜드 애브뉴, 레오니아)에서 열린다. 정정숙 박사의 저서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을 교재로 '가정원칙만 실천해도 확연히 달라지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료는 280달러.

▲문의: (201)242-4422

## 담임목사 청빙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있는 주님의교회에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동 교회는 2012년 6월 개척됐으며 50여명의 성도가 정기 출석하고 있는 ARP교단 소속이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 Th.M, 혹은 M.Div 학위 이상, 교단가입이 가능하고 담임, 부목사, 선교사로 3년 이상 경험, 미국 시민권/영주권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고백/목회철학/목회비전 등 포함),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혹은 동영상을 보내면 된다. 마감일은 없다. 서류는 이메일(gslordchurch@gmail.com)로만 접수한다.

▲문의: (336)254-9350 박의현 청빙위원장

## 뉴저지부부합창단 단원 모집

NJCC(New Jersey Couple Choir) 뉴저지부부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한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통해 합창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웃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단한다. 이메일: toki1023@hotmail.com

▲문의: (201)887-2323 제이콥유

## 이노비 홀리데이 아웃리치 콘서트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 홀리데이 아웃리치 콘서트가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총 9회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6일(목) 오후 2시 뉴저지연예가든 앙로원 △16일(주) 오후 4시 NYU 대학병원 13층 △19일(수) 오전 10시, 10시45분 이스터실즈 특수교육아동 △12월 5일(금) 오후 1시 홀리데이연예원 한인안환자 모임 △6일(토) 오후 12시45분 뉴저지초대교회 특수예배부 △13일(토) 오후 2시30분 뉴저지밀알선교회 △20일(토) 오후 1시 코코장예인서비스센터(프라미스교회 내) △24일(수) 오후 2시30분 맨해튼 드윗너서룸

▲문의: (212)239-4438



고 만수 김정준 박사 탄생100주년 기념예배 및 출판 강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김정준 박사 탄생100주년 기념예배

### "관에서 나온 사나이" 출판, 강연회도 겸해

고 만수 김정준 박사 탄생100주년 기념예배 및 출판, 강연회가 지난 6일 뉴저지 에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George Mason대학교 종교철학교수 노영찬 박사는 "김정준 신학이 한국과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오늘 세계는 근대의 절정기였던 20세기를 벗어나 근대후기인 21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김정준 박사의 삶과 가르침을 재발견하며 21세기가 요구하는 목회자상, 신학자의 상, 교역자의 상, 그리고 인간의 상을 찾아야겠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드류신학대학원 예배설

과학 겸임교수인 김남중 목사가 기념사를 통해 김정준 박사의 삶과 그의 가르침의 특징, 이어 받아야 할 점을 분석하고 새 방향제시를 했다.

이날 김정준 목사가 직접 쓴 자서전과 30개월간의 마산오양소에서의 투병기, 병원목회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관에서 나온 사나이"와 그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설교 13편이 수록된 CD가 배부됐다.

한편 이날 예배 설교는 김만수 목사가 맡았다.

구입을 원하면 (718)213-8645(김영호 목사)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 하은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11월 월례예배가 뉴욕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 초청으로 열렸다. 5일 오전 10시30분 예배에 이어 은퇴 목사부부들에게 오찬을 대접했다.

이날 예배는 이성철 목사 인도로 기도 강준창 목사, 설교 고훈 목사, 헌금기도 이문구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훈 목사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본문으로 "어렵고 힘든 현재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리셋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새벽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벽예배의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왕따'가 되며 '주책'이 되는 교인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왕따'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교인, '주책'은 왕따되는 교인을 주님이 책임져주시는 아름다운 교인이라고 설명했다.

식사기도는 김용욱 목사가 맡았다.

뉴욕원로목사회 다음 모임은 열방교회(담임 안해권 목사)에서 11월 20일(목)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교협 42회기 임원진/분과위 조직발표

## 협동총무 44명 등 총 156명...역대 최대

제 42회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새 임원진 및 각 분과위원들이 발표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10일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새 조직표를 발송했다. 42회기에는 회장 등 임원진 8

명, 수석협동총무 2명 이외에 지역협동총무 19명, 협동총무 23명을 임명했다. 분과위원회는 55개 분과,

특별위원회는 45개 위원회를 뒤 총 152명을 선임했으며 감사 3명과 이사장 1명 등 총 156명의 뉴욕교협 사상 최대 거대내각을 조직했다. 각 명단은 도표와 같다. 한편 뉴욕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가 18일(화)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임원	성명	교회명
회장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의교회
부회장	이종명 목사	뉴욕강성장로교회
부회장	박영진 장로	뉴욕성결교회
총무	김희복 목사	뉴욕주천양만국교회
서기	한기철 목사	뉴욕할렐루야교회
부서기	이철희 목사	뉴욕농아인교회
회계	이광도 장로	뉴욕동부교회
부회계	권금주 목사	기쁨과영광교회
협동총무(수석)	박맹준 목사	뉴욕신일교회
협동총무(수석)	송일권 목사	큰은혜교회
감사	허윤준 목사	뉴욕새생명장로교회
	김영철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이주익 장로	뉴욕예일장로교회
이사장	이상호 집사	뉴욕성결교회

### 지역 교단 협동총무

임원	성명	교회명
협동총무	함성은 목사	뉴욕선민교회
협동총무	이준성 목사	뉴욕양무리장로교회
협동총무	이은수 목사	큰샘교회
협동총무	현영갑 목사	뉴욕샘물교회
협동총무	김영환 목사	뉴욕효성교회
협동총무	김상태 목사	주님의교회
협동총무	박상일 목사	뉴욕남교회
협동총무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쁨교회
협동총무	김연규 목사	뉴욕비전교회
협동총무	주희식 목사	뉴욕정원교회
협동총무	장재웅 목사	롤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협동총무	유승례 목사	어린이양육장로교회
협동총무	정대영 목사	퀸즈동부교회
협동총무	김진화 목사	하예성교회
협동총무	이종범 목사	뉴욕만백성교회
협동총무	임용수 목사	좋은씨앗교회
협동총무	마초훈 목사	뉴욕참빛교회
협동총무	노성보 목사	웨체스터장로교회
협동총무	박준수 목사	뉴욕침례교회

### 특별위원회

임원	성명	교회명
공로상포상위원회	김재열 목사	중부교회
이단대책특별위원회	유상열 목사	라빙스톤교회
교단협력위원회	이규섭 목사	퀸즈한인교회
목회자교류위원회	이희선 목사	새언약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최예식 목사	뉴욕복된교회
개척교회지도위원회	이승재 목사	은혜교회
대외관계위원회	정순원 목사	빛과소금교회
미디어위원회	이종식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장학위원회	전희수 목사	기쁨과영광교회
신년하례위원회	황영송 목사	수정성결교회
기독교방송위원회	윤세웅 목사	뉴욕제일교회
목회자후생위원회	이풍삼 목사	한인동산장로교회
노인분과 위원회	조금석 목사	뉴욕충정장로교회
문화특별위원회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교단소통위원회	백문현 목사	미주사랑의교회
부활절준비위원회	박미애 목사	한마음침례교회
새건축관리위원회	장경태 목사	뉴욕소망장로교회
내선선교위원회	신석환 목사	부활의새침교회
목회상담위원회	김국욱 목사	에버그린장로교회
주소록출판위원회	이종명 목사	뉴욕강성장로교회

## 뉴욕교협 새 이사장에 이상호 안수집사

### 이사회 28회 정기총회, "교협과 협력, 존경받는 이사회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사회 제 28회 정기총회가 지난 3일 저녁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새 이사장에 이상호 안수집사(뉴욕성결교회)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전임 이사장 박영진 장로의 추천으로 단일후보에 올라 선임된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교협과 협력하며 존경받는 이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와 성원을 부탁했다. 이상호 이사장은 사회적으로도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부이사장과 임원은 신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 일제히 취임했다.

1부 예배 설교는 회장 이재덕 목

사가 맡아 내적으로는 겸손하고, 하나님과 회원들을 섬기는 교협과 이사회 상을 제시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교협과 이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재덕 목사는 올해 말까지 교협 예정 행사로 △11월 18일 뉴욕교협 이취임 예배 △추수감사절 사랑의 터키 모금 △성탄절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을 소개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2부 회의는 박영진 장로의 사회로 감사보고, 회계보고, 사업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사회는 총수입은 20,713달러, 지출은 20,630달러다. 이와 별도로 두 번의 골프대회는 수입 13,205달러, 지출 13,175달러를



뉴욕교협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협동총무

임원	성명	교회명
협동총무	정관호 목사	뉴욕만나교회
협동총무	한석진 목사	한길선교교회
협동총무	안승백 목사	뉴욕운유한교회
협동총무	노인수 목사	뉴욕불기동장로교회
협동총무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협동총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협동총무	김요셉 목사	뉴욕예수생명교회
협동총무	권순원 목사	뉴욕임마누엘선교회
협동총무	이승한 목사	뉴욕장로교회
협동총무	조성희 목사	후리성장로교회
협동총무	신우철 목사	뉴욕서울장로교회
협동총무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협동총무	최현준 목사	조은교회
협동총무	김재호 목사	뉴욕시온산장로교회
협동총무	빈상석 목사	뉴욕동양제일교회
협동총무	조성훈 목사	뉴욕제일장로교회
협동총무	김일국 목사	뉴욕한성교회
협동총무	이대문 목사	지구촌교회
협동총무	정상철 목사	뉴욕예본교회
협동총무	정방영 목사	뉴욕제자교회
협동총무	김진관 목사	양무리장로교회
협동총무	송원섭 목사	한나선교교회
협동총무	나광수 목사	뉴욕새살교회

### 특별위원회

임원	성명	교회명
지도위원회	김해중 목사	증경회장/연합감리교회감독
은퇴목회자위원회	장영춘 목사	증경회장/민조장로교회
목회연구위원회	박희소 목사	증경회장/뉴욕동부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이문구 목사	증경회장/한인교포교회
복음통일위원회	김용걸 신부	증경회장/성공회
결혼상담지도위원회	김정국 목사	증경회장/뉴욕한민교회
증재위원회	장석진 목사	증경회장/뉴욕성결교회
자문위원회	방지각 목사	증경회장/뉴욕요신장로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김남수 목사	증경회장/프라미스교회
교회개발추진위원회	한재홍 목사	증경회장/뉴욕신광교회
신학위원회	최용렬 목사	증경회장/후리성나사렛교회
부흥강사단위원회	안창의 목사	증경회장/민중중앙장로교회
협력위원회	송병기 목사	증경회장/뉴욕목양장로교회
목회복지위원회	황영일 목사	증경회장/뉴욕계명장로교회
인권위원회	김영식 목사	증경회장/뉴욕메델교회
민족문화위원회	허걸 목사	증경회장/뉴욕한신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병홍 목사	증경회장/새가나교회
연합선교위원회	정수명 목사	증경회장
지역협력위원회	황동익 목사	증경회장/뉴비전교회
신입회원위원회	최창섭 목사	증경회장/에벤에셀선교교회
법규위원회	신현택 목사	증경회장/뉴욕성신교회
윤리위원회	김원기 목사	증경회장/뉴욕메디슨교회
미지리교회추진위원회	양승호 목사	증경회장/뉴욕순복음연합교회
목회자재교육위원회	김중훈 목사	뉴욕예일장로교회

기록했다.

이사회는 지난 회기부터 할렐루야대회 순서지 광고를 담당해 11,400달러를 후원했으며, 이사 개인들도 3,300달러를 지원했다. 신년 하례식 1만 달러 후원금 전달, 교협 체육대회 음식일체와 물품 지원 등 이사회는 교협의 각종 연례행사에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신임 이사로 김학선 장로(뉴욕강성장로교회), 임정섭 임혜숙 집사부부(뉴욕늘기쁨교회)가 가입했다.

한편 지난 10월 총회에서 선출된 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 부회장 이종명 목사,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한기철 목사 등 신임임원들이 참석해 상견례를 나눴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뉴욕기독교방송(CBSN) 인터넷 방송 실시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앱을 통한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험 방송을 하고 있으며 CBSN웹사이트(www.newyorkCBS.net)와 애플의 아이폰 앱 방송은 제작 중에 있다.

삼성 갤럭시 폰이나 LG, 모토로라 폰 등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으로 현재 24시간 들을 수 있다.

방송 내용은 CBSN뉴스, CBSN광장, 살롬! 문석진 목사의 찬양데이트, 김수경 목사의 찬양의 향기와 건강한 크리스천 및 성서강해, 문석진목사가 만난 사람, 24시간 말씀듣기, 24시간 찬양듣기, CBSN 세미나, 라디오강단, 큐티와 찬양 등과 함께 설교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1)구글 play 스토어에 들어간다. 2)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그림(검색)을 누른다. 3)검색창에서 CBSN이라고 검색한다. 4)검색 후 보이는 CBSN 앱을 클릭한다. 5)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설치'를 클릭한다. 6)앱 설치 동의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온다. 7)화면 오른쪽 밑에 나오는 '동의'를 클릭하면 설치된다. 8)앱을 클릭하면 설치되며 앱은 Play 스토어를 나간 후 바탕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사제공: CBSN)



# 교회학교 2014 감사절/성탄절 준비

## 어린이전도협회 교사강습회, 29기 찬양올동학교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014 감사절/성탄절 교사 강습회 및 29기 찬양올동학교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계대

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에서 열었다.

여병현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인 교회에 주일학교교육의 위기가 찾아왔다. 과거 6-70년대 한국에 불어닥친 부흥의 물결로 인해 주일학교 인원이 장년보다 3배정도 많았다. 그 당시 아이들이 현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고 세계 선교의 선봉장에 선 자들"이라 설명했다.

이날 강습회는 '감사절과 성탄절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실제', '감사절&성탄절을 위한 티칭 Tools', '성탄발표회를 위한 뮤지컬&드라마 아이디어', '성탄발표회를 위한 아이디어', '성탄예배를 위한 새로운 찬양과 율동', '즐거운 감사절/성탄절 크래프트 워크샵'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2014 감사절 및 성탄절 교사 강습회 및 29기 찬양올동학교에서 참석자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고 있다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린 땡스기빙콘서트에서 허지에 자매와 박갑수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명성교회에서 열린 고 최민 선교사 추모예배에서 유가족 대표 최송호 형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미주 기독교언론인 고 최민 선교사 추모예배

미주 크리스천 언론인 출신 고 최민 선교사 추모예배가 7일 오후 6시 남가주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에서 열렸다.

GMCC선교회, 세계기독교언론협회, 남가주명성교회 공동주최로 열린 추모예배는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시작,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가 기도했으며 정해진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사회자가 고인의 약력 소개를 했으며 본 교회 김신호 장로와 운영자 권사, 그리고 김숙영 사모가 조가를, 유용석 장로(LA기윤실), 박문규 학장(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대학교)이 조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서종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

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고 최민 목사는 1949년 11월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출생, 1988년 중국연변대학 졸업, 중국에서 다년간 특파기자로 활동했으며, 1994년부터 99년까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수학하며 목회학석사를 취득했다. 이어 97년과 98년 북방선교사역으로 13차례 출국했으며 2002년 미주장신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11월 중국 동북부와 남부로 2차 선교사역을 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동북지역에서 사역해오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약력으로는 크리스천 위클리 편집국장, 남가주 크리스천 기자협회장, 중국동포 크리스천 연합회 회장, 미주동북아시아 인터넷 신문대표, 세계한인선교회협의회(KWMC) 부회장 겸 강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두만강변의 십자가', '믿는 자의 고백', '변화하는 중국, 선교도 달라져야 한다', '중국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이 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순자 여사, 딸 최송매, 그리고 아들 최송호가 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담임목사 청빙

베이저역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말씀의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불편이 없고 약간의 목회경력이 있는 40대 초반의 목사를 구한다. 지원마감은 11월 30일. 설교동영상, 출신학교와 사역경험, 가족사항, 목회자로서의 고백 등이 포함된 프로필과 추천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785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문의: camry2004@hanmail.net

### 전도사 초빙

요셉선교회(담임 정상호 목사)에서 2명의 전도사를 초빙한다. 전도에 투철한 사명이 있고 신학교 2년 이상 재학자로 전도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거나 집사로서 5년 정도 봉사한 자(신학교 입학보조와 자격증 취득 도와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 소개서와 재학증명서, 전도사 자격증, 집사 임명장이며 전화한 후 직접 내교회 상담하면 된다.

▲문의: (213)245-4090, (213)798-9919

### ITS신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집중강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프로그램 집중강의가 12월과 내년 1월에 진행된다. 집중강의는 '이거스틴의 신학과 생애'(강사 조장호 박사, 베일리대학교 교수)와 '로마서 읽기'(강사 김도현박사, 콜로라도 크리스천대학교 신약학 교수). 본 강의는 본교 학생들 외에도 관심 있는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의 수강과 청강도 가능하다.

▲문의: (562)665-5057



울림선교회합창단원들이 '희망의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다.

## 음악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 울림선교회합창단 제 8회 정기공연 성료

울림선교회합창단(단장 강철순/총지휘 이우진) 제 8회 정기공연 및 나눔 행사가 9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돼 3시간여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곡과 가요, 찬양을 들려줬다.

이날 정기연주회 오프닝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 '화개장터', '진주조개잡이' 등이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로 울려 퍼졌으며 이어 등단한 합창단원들은 '희망의 속삭임', '그리움', '옛 시인의 노래' 등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울림선교회합창단은 올해에도 올림픽 경찰 청소년 미래 사관생도 프로그램 운영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홍석중 목사(블리비

야 선교사)와 이성희 목사(예수만남교회)에게 선교헌금을 전했다.

울림선교회합창단은 음악을 통한 질병예방과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창단돼 성가곡, 동요, 가곡, 외국곡, 건전가요를 부르는 합창단으로 비전공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다.

본 합창단 모임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으며 노래를 즐기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단원이 될 수 있다. 합창단 문의는 (213)663-518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올림픽장로교회 땡스기빙콘서트

### 정종원 목사, 허지에, 박갑수 목사 등 출연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노래가 있는 땡스기빙콘서트가 8일 저녁 7시30분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꿈이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 심어송라이터이자

MBC위대한탄생 출신 허지에 자매, 냉수한그릇의 박갑수 목사, 그리고 올림픽장로교회 옐로합창단 팀이 출연해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박준호 기자>

## 주빌리뮤직아카데미 주최 주빌리콘서트

온마음교회(담임 김종환 목사) 부설 주빌리 뮤직 아카데미(지도 김미경)는 9일 오후 6시 주빌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주빌리아카데미에서 운영 중인 성악클래스의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들을 콘서트라는 무대를 통해 펼치기 위해 마련했다.

이유림 자매, 소프라노 이아정, 박효순, 김은희, 김영성, 최재윤, 최덕순, 천영자, 테너 정종준, 황성준, 그리고 오아시스 남성중창단이 출연했으며 전체지도를 담당할 소프

라노 김미경의 무대가 선사됐다.

<박준호 기자>



온마음교회에서 열린 주빌리 뮤직 아카데미 주최 주빌리콘서트에서 이유림 자매와 소프라노 김미경씨가 찬양하고 있다

## 신암교회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로 신암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5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육관과 교육시설(각 교실, 도서실 등)이 완비된 교회입니다.

- 1. 자격:** (1) 장로교 신학교(합동측) 본 노회 가입에 적합한 신 분 (2) 연령 40대에서 50대
- 2. 제출서류:** (1) 목사 안수 증명서 (2) 이력서(사진은 여권사진 크기) (3) 가족소개서 및 가족사진 (4) 담임목사 목회방침 계획서 및 설교 CD
- 3. 제출방법:** (1) 직접 방문 (2) 우편송부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3) E-mail: shinamchoungbing@hotmail.com / shinamchoungbing@gmail.com Contato: 00551194121-0855(강용학 장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보낼시 두 이메일 주소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4. 제출처:**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TEL, 2693-0314) (R. Rodovalho da Ronseca, 194-PARI, São Paulo SP Brasil CEP 03028-030)
- 5. 제출마감:** 2014년 11월 30일 까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문의:** 청빙위원장 강용학 장로(011-94121-0855)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한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치유간증집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이 찬양하는 모습

##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치유간증집회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 설교에 백현민 목사



빅토벨리한인목사회가 총회를 통해 제 9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우측 4번째 회장 백석영목사.

## 빅토벨리한인목사회 새 회장에 백석영 목사

### 정기총회, 9대 임원진 선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가 주최한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치유간증집회가 8일 오후7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최대영 장로의 사회로 열린 집회는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지휘 노형건 선교사)의 찬양, 김종명 장로의 기도, 그리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준비한 힐링영상 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백석영 목사의 간증, 조이폴선교회합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백현민 목사(주의나라교회)가 사도행전 4장 8-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집회는 임승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빅토벨리지역 한인목사회가 11월 3일 오전 10시 주의사랑선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백석영 목사를 선출했다.

빅토벨리한인목사회 회원들은 지역 복음화를 위하고 이단 사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정통교단 소속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올해로 9대 새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회장: 백석영 목사(주의사랑선교회) △총무: 고승경 목사(힐렌데일한인선교회) △회계: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 월장)

(기사제공: 빅토벨리한인목사회)



# 한국교회, 특별새벽기도회 속으로...

## 섬김·나눔으로 더 풍성한 '2014 추수감사절'

### 전국교회 추수감사주간 표정

한국교회가 오는 16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의미에서 '특새'를 진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중요 절기와 맞물려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인 매년 4-5월 보리 추수(룻 1:22)를 했으며, 밀 추수 때는 맥추절(출23:16)을 지켰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수장절(레23:39)을 지켰다. 이처럼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추수할 일부를 남겨두라'는 명령(신24:19-22)에 따라 특새를 개최하며 이웃을 돌보는 특별한 행사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13

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어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10일부터 5일간 오전 5시 추수감사 및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일 본 교회와 지성전, 인터넷 등으로 7만여명의 성도가 기도회에 참석한다. 성도들은 새벽기도회 기간 중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시간도 갖고 있다.

지구촌교회(진재혁 목사)도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5시 경기도 분당 및 수지 성전 본당에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를 주제로 이동원 원로목사와 조기연 아세안합신대학교 북한연구원

원장,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 한정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김요셉 원전침례교회 목사 등이 설교한다.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목사)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사랑의 슈박스'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어린이들과 해외 선교지 아동, 국군장병에게 보낼 선물장자를 보내는 이번 행사는 '빛의 열매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진행되는 섬김 사역 중 하나다.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제자로 살다'를 주제로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교회와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진행 중인 이번 기도회에는 화천 간척교회와 흥천 화방교회 등 주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청했다. 춘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지용

찬 목사)와 새부름나무국제청소년 네트워크(총재 강지원은)는 13-15일 춘천안디옥거리교회(유진형 목사)에서 추수감사절 바지를 열어 수의 금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 여의도순복음중동교회(김경문 목사)는 11-13일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연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성하 고신순복음중동교회 목사, 김경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충남 천안 서북구 중무로에 있는 축복교회(남상훈 목사)는 추수감사주일인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교회 본당에서 차상위 계층과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살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선 접수를 제공하고 찬양과 웰로연주 등 해피데이 문화축제도 갖는다.

서울 신촌성결교회(이정아 목사)도 16일 추수감사 찬양예배와 '잃은 양 찾기 전도축제'를 동시에 개최한다. 세종 우리들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특별새벽기도회를 4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 "간증으로 불안과 공포 조장...미혹에 빠뜨리는 일탈행위" 한교연, 땅굴·12월 전쟁설 교회 유포 비판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최근 교회를 주변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땅굴 발견 및 12월 전쟁 등의 각종 설(說)에 대해 "성도들은 일방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교연은 7일 '땅굴괴담, 12월 전쟁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최근 한반도 전역에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거나 12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일부 교회의 간증 집회를 통해 기독교인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연은 "간증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면 이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신앙의 일탈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안보를 내세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민분열을 꾀하는 것은 한국교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담화문은 이어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종말론과 전쟁설은 어김없이 등장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교담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교연은 "목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간증자들을 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일부 간증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담화문은 끝으로 "차체에 정부와 군은 땅굴 의혹 등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민간공공동조를 통해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 '동성애 조장 법안' 교계 사회단체 강한 반발

## 인권교육지원법안 결국 철회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교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인권교육지원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관은 "6일 오후 법안발의자 여야의원 45명 중 26명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화를 추진해 온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으로, 18대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0일에 여야 의

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지원·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등을 주장하는 등 좌편향을 보인 데다 동성결혼 합법화 활동 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망국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 교계와 시민단

체의 강력한 항의에 유 의원이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각 단체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인권교육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 "땅굴 괴담, 안보 불신하게 하는 행위" 한기총도 땅굴·전쟁괴담 비판

한국교회연합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도 최근 교회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는 땅굴·전쟁괴담을 비판했다.

한기총은 10일 성명사에서 "구체적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땅굴' 혹은 '전쟁' 등을 주장해 대한민국 1200만 성도와 5000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불신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82년 이후 남침 땅굴 민원 740여건을 접수해 590건을 시추했지만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말했다"며 "분명한 것은 국군이

지금도 철통같은 경계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격려나 조언은 필요하겠지만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주장에 현혹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와 교회 간증집회 때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자체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 "성장 대신 사역 본질에 충실" 예장합동 목회자 세미나 2015년 목회방향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1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울교회에서 '제10차 총회목회자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2015년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섬기는 본질적 사역에 충실할 때 자연적으로 교회부흥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있었다.

강사로 나온 김인중(안산동산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소명을 잃어버린 병든 목회자가 교회를 병들게 하면서 시작됐다"면서 "목회자가 건강하면 당회와 평신도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한 전도자는 전도대상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불신자를 볼 때마다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면서 "사임목회자는 부교역자, 장로를 사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병든 양떼를 치유하는 섬김의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건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로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 "교회는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이라며 "따라서 목회자의 마인드가

폐쇄적이면 절대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질 수 없다. 성도들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창우(서울 장충교회) 목사는 지속적인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통적인 교회일수목

회의와 행사는 많지만 실제 성도들의 양육이 부족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빈약하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 '교회를 재부팅하라' 다음세대 부흥방법 모색

## 한국교회실천신학연구원, 건강교회세우기 컨퍼런스

한국교회실천신학연구원(회장 송영진 박사)은 지난 6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에서 제10회 건강교회 세우기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역할론과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교회를 재부팅하라'를 주제로 발표한 감신대 김영래 교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예수회복, 성경회복, 기도회복, 증언회복이 대

Disciples) 귀신을 내어 쫓으며(Cast Demons), 병자를 고치신(Heal the Disease) 예수님의 사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경을 가장 성경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소리로 듣고, 요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나는 것"이라며 "교회학교에서는 '오절 암송'이 아니라 '이야기 암송'을 권장해야 하고, 설교자들도 '오절 인용'이 아닌 '이야기 인용'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도회복을 위해 기도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며 "증언회복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증언자'를 양육하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를 세우라"에 대해 발표한 호서대 황병준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있는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근 발표된 각 교단별 교세현황을 참고해 교회는 수구화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인 수가 감소하고, 특히 젊은 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존의 교인들의 상당수가 다른 종교로 이동하거나 안티 기독교가 되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소통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동부(NY, NJ) 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b>뉴욕갯세미네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연구: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연구: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b>뉴욕새사문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45 수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FM(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연구: 오전 10:00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 3주)		<b>링킹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2:50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연구: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수요 성령기도회: 오후 8:30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45		<b>에벤에셀신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00		<b>에사라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주미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성경연구: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b>킨즈헌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킨즈헌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미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하와이 및 북미 지역</b>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수요성경연구: 오후 7:30(영아)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30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0 새벽기도회: 오전 5:4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연구: 오후 9:00 수요성경연구: 오후 7:40 수요, 중, 금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수요성경연구: 오후 8: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8:00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 크리스천 리더십 (7)

## - 느헤미야의 리더십(5) 조직을 잘 하는 리더(느헤미야 3:1-32)

번역 및 요약: 최운동 목사 (감사한인교회)



느헤미야의 리더십 원리에서 보면 먼저 리더는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잘 설명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직이 없는 동기 부여는 좌절감만 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조직법의 몇 가지 원리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 1. 단순화의 원리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성벽 사역을 위해서 단순한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나, 어떤 복잡한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다. 기억할 점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조직을 새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기존 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

때로 새 리더가 들어오면 먼저 전체 조직을 바꾸려고 시도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만일 기존의 조직이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고치려하지 말라. 느헤

미야의 리더십 원리에서 보면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말하지 않지만 모든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사업체에서, 여러분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느헤미야는 기꺼이 일하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일하려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그들을 끌어들이려 잠을 못자지도, 기분 잡치지도,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았다. 만일 당신이 리더라면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참여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들을 격려하라.

### 3. 일 분담의 원리

당신이 조직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구체적인 임무로 나누며, 특정한 사람에게 그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하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구역"이라는 말이다. 그 단어가 13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전체 벽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사역을 가능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기 쉽게 해주었다. 포인트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소유권의 원리이다.

### 5. 협력의 원리

언제나 팀워크(teamwork)를 격려하라. 어떤 규모의 사역이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인트는 그들은 함께 일했다는 것이다. "그의 옆에서" 또는 "그들 옆에서"라는 말이 20번이나 사용되었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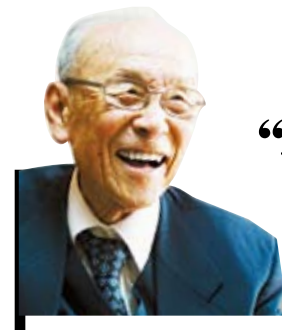
기러기는 개별적으로 날아갈 때보다 함께 형태를 이루어 날아갈 때 72%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것을

도자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점검하는 것을 한다. 뒷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 7. 감사의 원리

좋은 조직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안다. 3장에는 느헤미야가 영예를 돌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그 이름들은 2천년 후 오늘에도 남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이 감사의 원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주목하여 보라. 의심할 여지없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훌륭한 리더의 특징이다.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데 큰일을 한 38명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 당신은 리더로서 조직 안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만일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칭



# 방지일 칼럼 (64) "본대로 들은 대로"

## 세대 차이

옛날은 노소간 차이를 말하곤 했다. 지금은 그 차이가 대단하다. 쌍둥이도 선봉 후봉으로 한 날 낳지만 그 선후로 차이 운한다. 지 나친 말이 아니다. 이만기 분의 실담을 들어보았다. 한국에서 낳아서 길러지고 간 아이와 미국에서 난 아이 그리고 미국서 여러 해 만에 낳은 아이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말이다. 자신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세 질의 아이를 길러보니 그렇게 현격하게 그 문화의 차이가 생기더라는 말이다. 한 어머니가 나온 아이들이요 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이인생활의 그 문화 차이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내더라는 말이다. 내 집안에서 초등 3년짜리와 1년짜리 둘을 비해 보아도 1, 3학년인데 그 발음이던지 또 생각이 현격하게 다를 수 있었다. 그러니 전에 노소의 차이란 말은 벌써 옛말이 되고 만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어머니에서 난 자녀라 할 지라도 그런 점을 알고 대하여야 하리라. 이를 참고하여 자녀교육도 착념하자는 말이다.

그러되 우리 신앙인 가정에서는 조직으로 가정예배를 드림은 이스라엘의 상례에 해당한다, 벌여먹기 힘들어 새벽같이 어버이들은 나가고 예들은 각각 빵이나 구워먹고 학교 가는 판에 한가하게 가정예배를 볼 수 있겠느냐는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아침저녁 따라 각각 맡아서 순번으로 맡은 시간에 찬송 부르며 참여하는 이는 하고 못하는 이는 못하되 이렇게 간소하게라도 찬송소리를 내고 성경 한 절을 큰 소리로 외우고 기도하는 습성을 지속하여 계속하는데서 신앙인의 가정예배는 존속한다. 이로서 이 가정예배로 우선 신앙통일이 되어진다. 찬송 성경 등에서 내 모국어를 하루라도 잊지 않는다. 여기서 공동분모를 갖게 되는데 신앙도 유지되고 어느 정도 차이의 변동도 줄일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이런 식의 노력은 습관화시켜 할 만하다고 본다.

어떤 가정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꼭 모국어를 사용하게 한다. 만일 모국어를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한 끼를 굶는다는 이런 점으로도 습관화시킴을 보았다. 미국에 이민 와서 난 아이들이라도 집에서 모국어만 사용하게 되면 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나도 중국에서 20여년 있었어도 가정예배로 인하여 집에서는 제 나라 말을 다 하게 되었다. 일본 투항 후에 일본인을 따라왔던 교포가 모여들어 학교를 임시라도 설립하고 한 200명 모였는데 내 집 아이들만 한글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직접 당해 보았다.

지금도 일본에 또 미국에 각각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의 현지에서 낳은 아이들이 제 나라 말을 제대로 하는 집안도 몇 집 보았다. 매우 신통하게 생각되었다. 통제가 그러니 외국에 가서 별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집에서 왜 외국어로 친자 간에 대화를 하게 하겠는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쉬운 터인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라가게 한다고 집에서 부모는 외국어를 잘 못하면서 자녀와 대화도 없이 지낸다 함은 우리 이민자들의 큰 맹점이라 보여진다.

요즈음은 한국 살면서 영어만 하고 살게 하는 촌을 만든다함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옛 영어권의 통치를 받아 영어를 국어로 쓴다는 나라에 영어 배우러들 간다. 그들의 쓰는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도 아니며 자국어도 모르고 남의 말도 못하는 얼치기가 되니 문화적으로 예측의 삶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 있게 산다면 이런 일은 감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차이가 난다고 그 차이를 그 용어에서 매꾸어 본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보편적 풍토를 못 이해하는 소리 같기는 하겠지만 겨우 살아가는 용어나 배운다고 가정도 분산생활까지 한다. 더러는 가정도 파괴된다. 아이를 영어하게 한다고 가정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유치한 일이 있을 수는 없다. 뜻있는 분들은 제발 가정용 분산하면서 외국어 배우게 하는 그런 교육 좀 하지 말게 하라는 부탁도 받기도 했다. 생각하고 살자는 말에서 예까지 왔다. 이 글도 앞날에 생각 있는 후대들이 동감할 것은 내다보면서 써둔다.

(2007년, 28권)

# 단순한 조직구성, 참여자에 집중해 은사에 맞는 일 맡겨 소유권 인정, 협력강화, 감독 관리하고 칭찬하며 감사해

미야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 조직으로써 가족단위로 조직을 만들었다(4:13). 가장 강한 조직력은 가장 단순하다. 그것은 마치 장난감과 같다. 복잡한 장난감은 깨어지지만 블락은 깨뜨릴 수 없다. 무언가 복잡할수록 더 쉽게 깨어진다. 간단할수록 강해진다. 가장 단순한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

### 2. 참여의 원리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느헤미야의 공사에는 종교 지도자들,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귀족이나 친한사람들이나 모두 향수를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이 벽돌을 나르고 회반죽을 만들었다. 하지만 5절에 한 작은 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고귀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벽돌을 옮기는 일이 그들에게는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그들이 정확히

을 둘러보면서 그것을 시계와 같은 구역으로 나누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야밤중에 그가 말을 타고 성곽을 돌며 구역을 정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을 나누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큰 목표를 작은 일로 세분해 일을 맡겨 실행하면 효과적이다. (2)명확한 일의 설명서를 만들라.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3)각 사람의 은사와 성격에 맞는 적합한 일을 연결시켜주라.

### 4. 동기의 원리

어떤 사역을 조직할 때 소유권을 허락해야 한다. 사람들이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높은 동기감을 부여해준다. 만일 내가 나의 집을 보호해줄 벽의 부분을 세운다면 나는 더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시간을 절약해주며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아침에 걸어 나가서 일하면 된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간다.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함께 일하며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커다란 성장이 있다. 협력은 징병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 사역에서 언제나 공동체적인 협력을 강조하라

### 6. 감독의 원리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리더는 일을 잘 감독해야 한다. 느헤미야 3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느헤미야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점검하고,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각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는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2가지의 리더십 법칙이 있다:

1)좋은 조직은 명확한 권위의 계통을 만든다. 그들은 명확한 일의 설명서 뿐 아니라 명확한 권위의 계통을 갖고 있다. 2)사람들은 지

찬의 말을 아낌없이 하라.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상을 주라. 그것이 좋은 조직의 원리이다.

리더십 포인트: 느헤미야서 3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일하지 않는 사람, 같은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다.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보시고, 그들의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넘어서 더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보고 계신다.

리더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은사에 맞게 일을 맡기고, 사람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며, 협력을 강조하며 시종 일을 잘 감독 관리하면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절제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강력한 리더십이다.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회: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등학생부: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영림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b>엘파소영림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후 5시 30분(화-토)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 선교 편지

##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한 신자요?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 와 사랑, 물질로 헝가리 선교를 위해 저희를 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 24:45)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감사와 소식,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간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1) "기도자 학교"를 다녀와서, '엘리아의 숨은 7,000의 기도자' 같은 한 사람으로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 세 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시간은 저희 부부 Walking Prayer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10구역, 괴바냐이 동네의 교회와 성도들 집 앞에서 멈춰 기도하며 드는 것입니다. "알다쉬 비케슈그(Áldás Békesség, 평안을 빕니다)!"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 기도 합니다. 이 지역 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2) "쇼&빌라그샤그(소금과빛)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지

가 장소를 조금 옮김으로 시정했습니다. 올해 만 10년이 되는 이 구조 사역을 신뢰해준 시정 직원들께 감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5) 저희 동역자들과 섬기이들 소식과, 재할한 사람들의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10년을 함께 동역했던 '피테르' 전도사는 학교사역으로 옮겨갔지만 지난주에 와서 함께 섬겼고, 섬김이 '안드라쉬 & 발리카'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은행원, 아내는 학교 교사입니다. '주잔나'는 간호사인데 매주 열심히 섬기고 있어 감사하고, '클라라'도 학교 교사로서 힘이 됩니다. 간염이 걸렸던 '아탈라'는 건강 회복하였고, 새 가정에 두 자녀까지 생겼으며, 직장도 생겼습니다. 열심히 섬겼던 '헤르미나'도 늦은 나이지만 남편과 새 딸이 생겨,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긴 까미는 "사랑의 원조" 기관의 물류창고 일을 하며,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대출신의 엘리프가 노숙자들 쉼에 섰던 '이쉬트반'도 짝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들락날락 하던 '산도르'는 먼 시골 형님 집으로 가게 되어 아쉽지만, 또 만나길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벤체, 이바, 마르그 그리고 종종 이곳 중국인 청년들이 돕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후, 흥부선교사를 따라 무릎꿇고 기도하는 개구장이 자스틴...

과 철거민 사이에 싸움이 불고, 언론이 취재하는 등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집시 형제를 가정교회" 삼방과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술, 담배, 음란, 도적질,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청소되게 하소서! "회취 거리" 사람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고, 자녀들을 맡기니 감사합니다. 원집사님과 자녀 "크리스티나"와 "에스테르", 또 "준"이 보조교사로 섬기니 큰 힘이 됩니다.

과 철거민 사이에 싸움이 불고, 언론이 취재하는 등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집시 형제를 가정교회" 삼방과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술, 담배, 음란, 도적질,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청소되게 하소서! "회취 거리" 사람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고, 자녀들을 맡기니 감사합니다. 원집사님과 자녀 "크리스티나"와 "에스테르", 또 "준"이 보조교사로 섬기니 큰 힘이 됩니다.

# 에콰도르 단기선교를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 후, 흥부선교사를 따라 무릎꿇고 기도하는 개구장이 자스틴...

미남침례회(SBC) 소속인 한영훈사(담임 최요셉 목사) 단기 선교팀 29명이 6박7일의 여정으로 에콰도르를 다녀왔다. 북음의 불모지, 아직도 선교의 손길이 한 번도 뻗어지지 않은 지구촌 구석의 미전도 종족,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복음을 접해본 경험도 없는 그 곳에 한해동안 훈련받은 선교팀들이 각자의 사역을 다양하게 펼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선교기간 중 에콰도르 3개 지역(에스메랄다, 리모네스 섬, 오파발로) 중 에스메랄다에 성전을 봉헌했다. 그 중 한 지역은 강한 물살과 고아와 과부, 빈곤율이 높고 위험한 리모네스 섬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선교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 선교팀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이번 에콰도르 29명 선교는 10여 차례에 걸친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전략과 방식을 새롭게 준비하여 실시된 마태행 선교를 선보였다. 저녁에는 한영훈사(담임 최요셉 목사)가 건축한 ROCAFUERTE교회에서 건축예배와 리모네 섬 폴로세움에서 펼쳐진 큰 규모의 대형집회, 초중고등학교에서 펼쳐진 집회 등으로 이루어졌고, 낮 동안에는 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졌다. 이들을 위해 LA에

서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한 선물들과 음식을 나누어주고 전전적 사역을 위해 준비된 의료기구 및 안경 사역을 실시하였다. 선별된 29명의 선교팀은 올해 초부터 실시된 OSLTD(선교적 제자훈련 프로그램)훈련을 통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선교훈련을 해왔고, 선교기간 동안 5000여명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별히 리모네스 섬의 폴로세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원주민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들에게 필요한 치약, 칫솔 등 여러 가지 구제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이번 선교팀의 사역으로는 의료선교, 안경사역, 미용사역, 구제사역, 어린이 VBS를 실시하게 되었다. 섬에서 돌아올 때 강한 파도로 선교팀들의 배가 크게 흔들렸으나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선교팀의 마음에는 원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복음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두운 곳에 희망의 불씨를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담임목사 최요셉

## 십자말 • Cross Word (59)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Grid for Crossword puzzle with numbers 1-26.

### <가로 푸는 열쇠>

- 1. 야곱의 둘째 아들이니 레아의 소생이다(창29:33).
3.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딤후3:13).
5. 새의 일종. 꼬리가 길고 아름다워 퍼면 부채 모양이 돼 현란함(왕상10:22).
6.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걱정이 없다는 말(고사성어).
8. 점에서 나오는 과(겔13:6).
9. 단어(單字)(상식).
11. 감람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왕상6:23).
13. 애를 쓰며 속을 태우는 것(고사성어).
15. 욕심껏 구하는 마음을 채우지 못함(고사성어).
17. 제사(祭司)들 중의 우두머리(수21:19).
19. 강제로 권할(눅14:23).
20. 미끼를 깨어 물고기를 낚는 작은 바늘로 된 갈고랑이(욥41:1).
22.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로 바울이 징계하기 위해 사단에게 주었다고 했다(딤후2:17).
24. 연기의 냄새(상식).
25.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민25:11).
26. 풍이나 오줌 파우(빌3:8).

### <세로 푸는 열쇠>

- 1. 처음으로 한 곳(욥26:14).
2. 온화하고 부드러운(잠26:23).
3. 서로 바꿈(루4:7).
4. 눈동자가 비뚤어져 무엇을 볼 때 모로 보는 눈(상식).
7. 스톱바겐의 지도로 포도에서 돌아올 때 팔레스타인에 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관리(스4:7).
9. 이불 안쪽에 덧 시지는 한 겹으로 된 이불(막14:51).
10. 몹시 성냄(골3:21).
11. 제사의 한 가지(시107:22).
12. 목욕을 하는 장소(아4:2).
14. 자세히 따져 묻는 권리(겔23:24).
16. 조금도 언짢음이 없이 흐뭇함(전5:10).
18. 사방의 경계 안(신16:4).
19.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짓(레6:2).
21. 시내에서 흐르는 물(사30:25).
22. 단어(창46:23).
23. 다섯 갑절(창43:34).

### 십자말 정답

Grid for Crossword puzzle with letters.

Large directory of churches with logos and contact info. Includes: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동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미주양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선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남가주삼성장로교회, 새천양교회, 새생명선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얼반인침례교회, 요셉선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몬트교회.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3)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한인자녀들의 문제 중 한인 교회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입해야 할 한인자녀들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자녀들과 부모들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개별적 문제들의 원인 및 해결지점 그 중심에 '소통'이라는 근본적인 관계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인 가정 뿐만 아니라 한국 가정, 미국 가정에도 부모 자녀간의 세대 차이와 자녀들이 자라면서 거치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라는 현실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부모 자녀간 관계 및 소통에 있어서 모두 어느 정도의 긴장, 갈등, 그리고 어려움 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가정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화돼 "소통의 부재"라는 지경에 처해 있으며, 관계 소원, 긴장, 갈등 및 불화라는 현상과

말문도 닫아버렸나 봅니다. 부모자녀간의 소통의 부재와 긴장, 갈등, 불화의 문제는 원인을 떠나서 부모가 책임지고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일을 삼가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네가 잘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부담은 안그래도 힘든 자녀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심어 주고, 성적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화 관습의 차이를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겪는 일이니 하며 안심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미국

들도 "I love you and I am proud of you" 정도는 충분히 영어로 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정도의 한국말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을 건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과 소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가정의 모습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한인교회 교육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노력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가정 안과 밖에서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사역자들은 한인 가정의 부모 자녀간 관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위와 같이 성장하도록 먼저 부모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

### 부모자녀간 소통의 부재는 모든 자녀문제의 원인... 사랑은 언어장벽 허물어 먼저 부모가 영적, 신앙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모범 보이며 언행일치해야

말물려 가정의 위기로 작음해 전체의 삶의 문제를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 목적 자체가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과 삶에 있었기에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기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조차 자녀를 통해 부여받은 한인들이 도대체 어째서 자녀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그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긴장, 갈등, 그리고 불화를 경험하게 되고 종래에는 자녀들의 다양한 개별적 문제 행동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혹은 그러한 문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활로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한인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며, 또한 자녀들이 2세월인 경우 언어장벽이 있고, 문화적 및 가치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차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또한 부모들이 문화적 고립감과 불안한 가정경제 등의 상황과 마주하며,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언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문을 닫고

적 가치에 눈을 뜨고, 한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 사이의 건강한 균형 방법을 모색해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인부모들도 거친 이민 땅에서 밤낮 없이 생업전선에서 힘겹게 뛰고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시간과 여력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려고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자녀들이 성적 향상 같은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 자체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부모들이 우려하는 문화차이, 언어장벽 등 문제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 걱정만 하지 말고 잘 설명해주고 교육하면 됩니다. 강요가 아닌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면 의외로 자녀들은 잘 듣고 이해할 준비가 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또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따뜻한 포용으로 교감과 신뢰를 쌓기만 해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떠나서, 한인 부모

고 무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개선해 균형있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그들의 처한 상황 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들과의 소통 및 대화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한인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용기를 북돋우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다양한 개별적 문제 행동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혹은 그러한 문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활로를 차단시키는 것이 부모자녀간 관계 및 소통의 문제이므로 이를 더 이상 사적인 가정사로 묻어 두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인교회 교육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움을 주고, 부모 자녀간의 가교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 우리 자녀들을 교회와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오병이어의 교훈(요6:24)찬486장

오병이어로 오천명 이상을 먹인 기적을 보인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물장수의 띠 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한 삶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야가 바로 성부의 인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은 성부가 보증하신 유일한 구속자요, 대속자요, 그리고 종보지란 뜻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대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하던 것이 이제는 인자이신 종보자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의 무궁무

진한 은혜를 언제나 공급받습니다(요:5:1). 셋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서 주어진 그의 지위는 구속을 이루실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부의 인친 자기에 일곱인인 구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의 영원한 종보자가 되십니다.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공로는 영원하고 정확하고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 화 주님의 양식(요4:27-42)찬500장

주님과 그의 말씀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다? 첫째,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보여줍니다(32). 수가성 여인의 회심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하신 주님은 가리위진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의 숨은 뜻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찾는 일, 곧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은 직접 말씀을 들을

으로 온전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증을 통한 것보다 직접 말씀을 듣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견고합니다.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준행해 맛을 본 신앙이 견고합니다. 불같은 방화이가 갈고 생수 같은 빛 같은 말씀의 성격을 경험하는 그것을 자신 소유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 따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 수 표적의 목적(요1:48)찬506장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표적이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알려주는 안내 표와 같습니다(요1:48).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붙는 말이 기사 곧 기적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이 자연에 개입한 현상을 가리키기에 서로 교체 사용했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말씀으로 불치병이 치료될 때 그것을 행하신 이와 그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처럼 성경

의 기적은 오직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임을 명백하게 증거해 다단 그를 믿게 합니다. 둘째, 그러나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표적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은 외시입니다. 주님은 믿는 증거를 많이 줘 참 믿음으로 나아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나 사람들은 표적을 잘못 사용해 자기우상화의 수단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 목 더 큰 일(요1:35-51)찬509장

복음은 더 큰 일을 보게 합니다. 첫째, 전도의 최종정점이 와서 보는 것입니다(39).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의 전도방법입니다. 영화, 간증, 개인언 등 다른 수단들 사용해서도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기위해 먼저 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나다니엘의 구원은 그 내용이 풍성한 것입니다(51). 의아심으로 시작한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고전12:13).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할레 역시 이것을 근거로 한 셈입니다. 이 성령세례가 신자 구원의 시작이고 생활의 원동력이기에 성령의 능력의 세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세례를 받아 실제로 활용했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 금 성령세례(요1:33)찬181장

종말에 나타날 성령의 사역이 신약에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 못지않게 언급되다가 신약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창조 때 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창조 공, 구원에도 일하신 영을 보여줍니다. 창조가 구체적인 것처럼 구원 역시 아주 섬세한 사역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발생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다 무너지고 우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교회는 은혜를 받은 결과로 평강을 누리도록 돼있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란 없고, 평강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 안에서만 누리지는 열매입니다. 셋째, 이 복을 맛본 교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 토 평안의 복음(요20:21)찬179장

주님 교회는 평강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평강의 복음을 즐기며 평강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창12:1-3) 다윗에게 왕권으로 알려졌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완성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로 상실한 평강 곧 화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됐습니다. 부활 후 나타내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 선포였습니. 하나님과 원수된 장벽이 그의 죽음의 중보로

다 무너지고 우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교회는 은혜를 받은 결과로 평강을 누리도록 돼있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란 없고, 평강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 안에서만 누리지는 열매입니다. 셋째, 이 복을 맛본 교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131-231)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2)522-523-9419, Fax. (82)522-4834 500-170 경교장역시 북구 관음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31-977-8383-9, Fax. (82)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대 4회 Tel. (82)2-32-2341-3, 344(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82)1896-1000, 팩스(82)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성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82)2-842-1968, 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992-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b>수영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쉽니다)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안산시 사구 불로동 416-4(404-270)	<b>승등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344(82)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명동3 137 번지	<b>시온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2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3181-3, (82)2-2646-3184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6:00 Tel. (82)418-0491 Fax. (8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명동로 171 291(삼일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도회: 오후 8:30 Tel. (82)1182-9-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210-5500, Fax. (82)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82)842-6881, Fax. (8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43275-9191, Fax. (82)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4)

#### 1. 현대 중국과 1세기 에베소의 유사점

1) 많은 인구 : 500,000명  
에베소는 1세기경에 커다란 항구와 시장과 도서관을 갖춘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다. 에베소는 상업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중심도시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선교의 도전이었던 것처럼 중국의 소수 기독교인(5%)이 대다수인 93%의 비기독교인 인구에 다가가는 것은 엄청난 선교의 도전이다.

2) 종교적 도시 : 아데미(그리스 식)이라고도 불리는 여신 다이애나(로마식)의 거대한 신전은 에베소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이 신전은 높이가 342피트, 넓이가 164피트였으며, 높이가 56피트인 여러 기둥들에 의해서 지지되었고 빛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다. 아데미 여신은 신전 안에 모셔져서 숭배되었다(행19:27-28).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조상숭배가 오늘날 되살아나고 있다. 무신론 공산주의 정부는 지난 65년간 중국에 수많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을 만들어냈다.

3) 죄악의 도시 : 윤리적 가치의 상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부도덕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4:19) 마찬가지로, 불의, 뇌물, 모든 종류의 부도덕함은 오늘날 중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4) 박해 :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인들을 동원하여서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카타콤의 기독교인들"로 불렸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중국의 문화혁명(1967-1976)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아시아의 기독교인 박해는 우리에게 로마제국의 콘스탄틴황제가 밀라노 칙령(313년)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극심한 박해를 떠올리게 한다.

#### 2. 에베소 복음화를 위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그 외에도 에베소 교회와 중국 교회의 사이에는 수많은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중국에서 13억 명의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아주 적은 소수(5%)를 차지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아주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할례당(유대인)과 무할례당(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처럼(엡2:11) 중국 교회에는 많은 방언과 지역주의, 지역 간에 격차로 인해서 불화가 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아이를 낳을 훈련과 교육이 부재했다(엡4:14). 중국 교회에도 오늘날 숙련된 기독교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선교 전략은 교회의 지도자(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영적 은사를 강조함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훈련된 영적인 지도자들은 전도와 학생 사역, 사회 운동 그리고 많은 다른 사역들을 일으키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외국 선교사들과 중국 교회의 관계도 과거의 "부자지간"과 같은 관계에서 "동역자"의 관계로 그리고 현재의 "원주민교회 산하"로 전환되었다.

선교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다고 해서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450년이 넘는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억2천7백 명의 인구 중에서 641,351명의 개신교 기독교인(0.4%)을 포함해서 오직 110만 명(0.8%)이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일본은 33개의 나라, 245개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3,500명) 있다. 추가적인 선교사 파송은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한 해답은 아니다. 해답은 8,023개의 교회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환상적인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모택동 주석의 공산주의 법에 의한 통제에서 박해당하고 순교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열매를 수확하시는 것이다. 확실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일하셔서 수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때다.

저자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겪은 고난과 빠른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회성장폭발", "불복교회성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교회 성장 폭발"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호레이스 언더우드 박사(장로교)와 호레이스 아펜젤러(감리교)는 1885년에 한국에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다른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인기 있는 남학교와 여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웠다. 그들은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한국 교회의 발전을 마련하였다.

일제 식민시대(1910-1945)와 한국전쟁(1950-1953) 기간에 고통스러운 박해의 경험은 수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했다. 그들은 일본의 신사참배와 공산주의

### 영적 은사 강조한 '교회 지도자 훈련' 이 바울의 선교전략 아시아 최다기독교인 보유 중국교회, 자국민 전도가 과업

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 일반 성도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현대적인 "제자훈련프로그램"이다.

어떻게 중국의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인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사도바울의 선교 전략인 지역 교회의 지도자 훈련이 바로 정답이다. 현대 중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영적인 열정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

#### III. 중국 교회의 중요 사안

#### 1. 중국 기독교인들에 의한 "중국의 기독교화"(민족복음화운동)

중국인들에 의한 "중국의 기독교화"라는 개념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자국민의 전도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전통적인 서구의 선교 지도자들은 종종 서구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강조하였다. 비록 그들은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 교육기관과 신학교들을 세우기는 했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한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21세기에 제 3세계 선교사들이 서구의 선교사들의 숫자를 넘어서리라고는

세워져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복음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민족복음화"의 문제다.

우리는 얼마 많은 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선교사 비자 거부 때문에 외국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반 자국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중국 교회는 여전히 자국민을 전도해야 하는 엄청난 과업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에 13억의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71,385,700명의 중국 민족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에 1,215개, 홍콩에 1,250개, 대만에 3,728개의 교회들 합쳐서 총 9,609개의 중국 교회들이 화교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한다. 홍콩에 있는 세계 선교 중국 협력센터(CCCOWE)는 6개의 대륙에 있는 중국 교회의 연합사역을 하고 있다. 해외 중국 기업과 함께 하는 오늘날의 중국의 경제력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 교회들은 중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독교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는 6천만 명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다(1천6백만 삼자교회 성도들을 포함). 80,000개의 가정교회 또는 36,000명의 사역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중국에서 매일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만 명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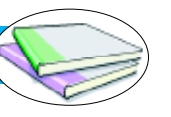
에 저항하였다. 한국 교회는 "고통당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결과적으로 순교자들로부터 열매를 수확하였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민족복음화운동"을 강조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복음화에 중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1990년에는 1천2백만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한국CCC의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는 "민족복음화 운동"의 핵심 운영자다.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국을 복음화 시키는 주된 책임을 갖게 되었다.

중국 교회는 40년 전의 한국 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빠른 경제 성장과 세속주의로 인해서 1990년대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이다. 최근에 서울에서 어떤 한국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영육을 이미 떠나셨고, 현재 미국을 떠나고 있으며, 한국을 떠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미 250개의 신학교로 많은 수의 사역자들을 키웠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교회의 정치적 상황은 한국 교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계속)

### 책 소개



###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 -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저자 이진희 목사

오래전 본지의 필자로 유대문화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연재했던 이진희 목사가 최근 흥미진진한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 풀어 이해하기

어라-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진희 목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많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배경을 알면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고 한다.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하더라도 성경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셨던 초대 교회부터 2천년이 흐른 오늘날, 당시의 언어, 문화, 가치관, 세계관, 경험이 다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진희 목사는 유대인 문화를 이해하고 당시 언어와 사상과 종교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부활절 오후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눅 24:32) 예수님처럼 압축과일과 같은 성경을 한번 클릭함으로 확 풀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이진희 목사는 프롤로그에서 밝혔다.

책은 1장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하에 '손님이 왔을 때 사라는 왜 내다보지도 않았을 까' 등 16개의 항목과 2장 정말 그랬을까? 하에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희한한 전쟁인 진짜 이유는?' 등 15개 항목, 3장 아하 그렇구나! 하에 '백세가 될 때까지도? 백세가 되었을 때?' 등 24개 항목, 4장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등 17개 항목 등 총 72개 항목이 실려 있다.

총 342페이지, 콤팩출판사 발행. 책 구입은 미국내 각 서점에서 할 수 있으며 책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jinhlee1004@yahoo.com)로 하면 된다. 한편 본지는 필자의 허락을 받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을 발췌 연재한다.

(유원정 기자)

###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43회기

# 정기총회 및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에서는 제43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새 회기를 이끌어갈 정·부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입후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총회소집

- ▶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 ▶ 장소: 순복음안디옥교회(이만호 목사)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 ▶ 대상: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원
- \* 회칙 제2장 5항에 의거하여 총회 무단 3회 불참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단 상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는 예외로 한다.
- ▶ 기타참고
- \* 회비는 50불이며 총회당일 접수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신입회원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43회기부터 정식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입후보자 자격

- ▶ 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 ▶ 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경력 만 5년 이상 된 자
- ▶ 목사회에서 임원 혹은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 ▶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혹은 재판에 계류 중)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 구비서류:
  - \* 후보등록원서 1통
  - \* 소속교단 추천서 1통 또는 증경회장 추천서 1통 (독립교회인 경우 증경회장 3인 이상 추천)
  - \* 회원 추천서 1통 (5인 이상)
  - \* 증경회장 추천서 1통 (2인 이상)
  - \* 이력서 (사진부착)
  - \* 입후보소견서 1통
  - \* 목사안수증명서 1통
- ▶ 등록은 11월 15일 오후 5시까지 목사회 특별선거관리위원회로 해야 한다.
- ▶ 후보등록기간 : 2014년 11월 3일 ~ 2014년 11월 12일 오후 5시
- ▶ 후보자확정날짜 : 2014년 11월 14일

문의:(917) 862-0523 이메일:kyu1115@gmail.com 홈페이지: www.kapastors.org  
원서 접수처:140-32 holly Ave. Flushing, NY 11355

주후 2014년 10월 30일



##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황동익 목사    총무 이상열 목사  
서기 이영상 목사    선거관리 특별분과위원장 송병기 목사